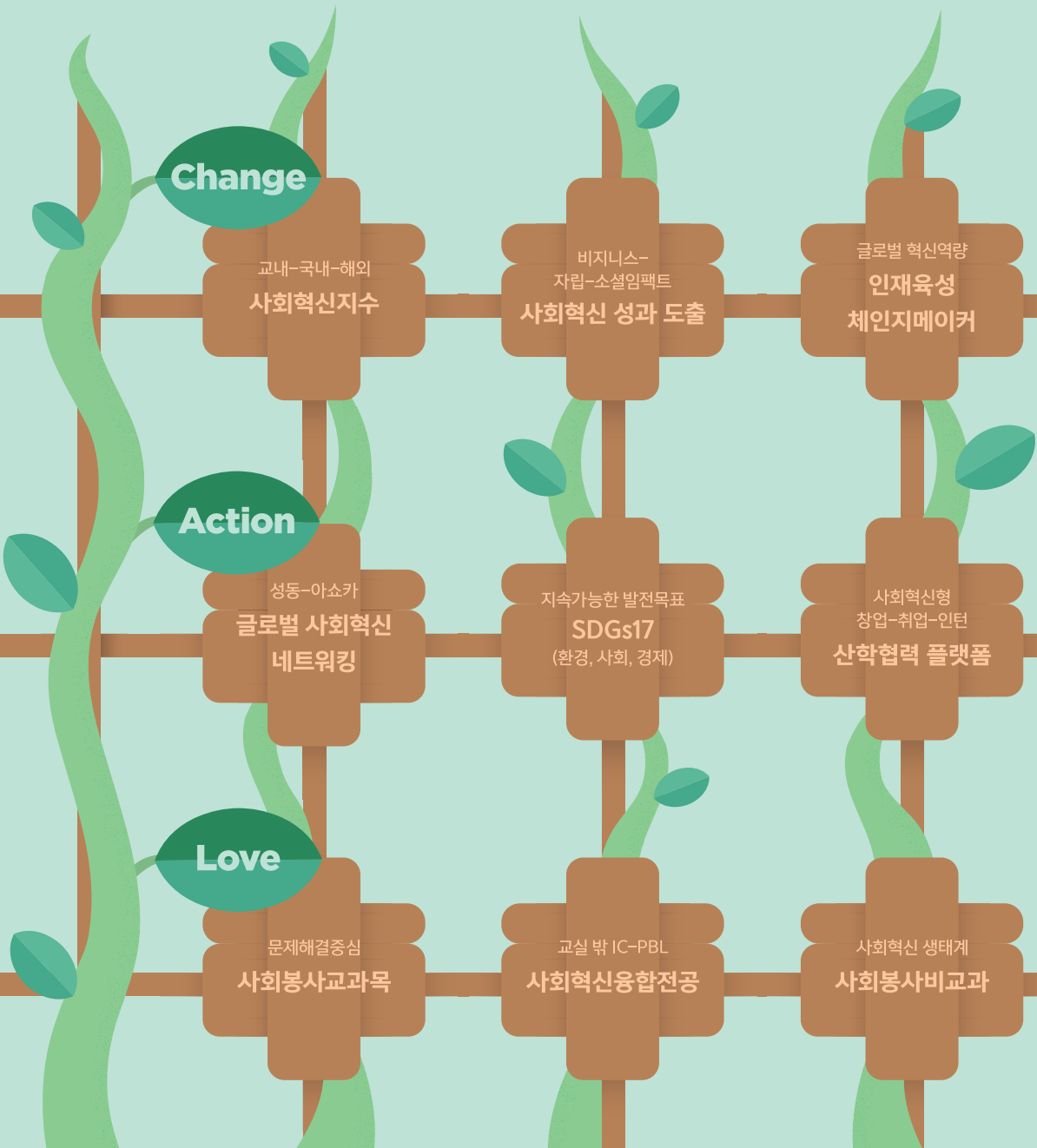


# Hanyang Social Innovation Center



<b>세상을 바꾸는 한양의 사회혁신 시스템 L.A.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봉사단장 인사말 4</li> </ul>
<b>Part 1 Love:</b>	<b>사회혁신 아젠다 설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 사회혁신융합전공, 사회봉사교과목 7</li> <li>▪ 비교과: 사회혁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11</li> </ul>
<b>Part 2 Action:</b>	<b>아젠다의 실천 방향 제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혁신 가치사슬의 확장: 글로벌 사회혁신 소셜 창업 13</li> <li>▪ 지속가능 사회혁신형 인재 육성: APYE 15</li> <li>▪ 글로벌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쇼카U 네트워크</li> <li>2) SSIR 한국어판 발간</li> </ul> </li> <li>▪ 집합적 임팩트 창출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사회 사회혁신 플랫폼: SDGs Changer's Lab</li> <li>2) 학교기업 L.A.C Studio</li> <li>3) 성동 착한기업 사업</li> </ul> </li> </ul>
<b>Part 3 Change:</b>	<b>사회혁신 성과 도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혁신 지수 상승 37</li> <li>▪ 포용성과 연결성을 갖춘 사회혁신형 인재 배출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플레이체인지메이커: 놀이봉사단</li> <li>2) 체인지메이커멘토링캠프</li> <li>3) 희망한대 리더그룹</li> </ul> </li> <li>▪ 사회혁신 프로그램 확산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문제 해결형 봉사프로그램-LUNA, 리빙랩, YCM</li> <li>2) 교육기부박람회</li> <li>3) 비즈니스 기반 사회혁신 프로그램 확산-카이나</li> <li>4) Seventeen Hearts Festival</li> </ul> </li> <li>▪ 한눈에 보는 한양의 사회혁신 58</li> </ul>

# 세상을 바꾸는 한양의 사회혁신 시스템 L.A.C

Love · Action · Change

한양대학교는 1994년 국내 대학 최초로 설립된 사회봉사단의 27년간 역사를 밑알로 삼아, 사랑의 실천자를 양성하는 미션을 구체화하는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사회봉사단장 인사말

대학 사회공헌 활동과 전공의 연계성 강화, 글로벌 사회공헌의 확대, 사회공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회봉사단 조직의 구조와 인력 구성을 고도화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혁신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HUGE Initiative를 공표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을 교육(Training)하고, 서로 연결(Networking)하여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Funding)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혁신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혁신 인재 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올해 Annual Report에서는 LOVE, ACTION, CHANGE로 축약할 수 있는 한양의 사회혁신시스템을 소개하며, 동시에 글로벌 사회에서 대학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와 사회봉사단 사회혁신센터가 수행해 온 여러 성과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Annual Report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회혁신의 근간을 다지고자 하는 교과목 및 비교과 소개(LOVE)
- 사회혁신 아젠다의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확장해 온 사회혁신 가치사슬과 지속 가능 사회혁신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소개(ACTION)
-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 이룩한 사회혁신 성과 사례(CHANGE)

Annual Report에 실린 각각의 사례와 노력들이 대학의 사회공헌 활동 발전에 기여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하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 명 직** 교학부총장  
사회봉사단장

# Part 1

Love  
Action  
Change

## 사회혁신 아젠다 설정

교과, 비교과를 통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교과

## 세상을 바꾸는 힘의 시작, 사회혁신융합전공

한양대학교는 2018년 4월 동아시아 최초로 세계적인 사회혁신 대학들의 네트워크 '아쇼카U'에 가입하였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Public Mind), 창의적가치창출역량(Value Creation), 실천을 위한 자원연계역량(Global Networking)의 3대 핵심역량을 갖춘 '체인지메이커' 양성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최초로 개설된 사회혁신융합전공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및 교과 프로그램이 연결된 사회혁신 통합 교육과정체계가 존재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사회혁신융합전공은 입학 후 1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지원 가능하며, 전공 36학점을 이수하면 사회혁신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주전공과 중복되는 과목은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사회혁신 기초 이론, 사회문제 해결 실습, 학기제 현장 실습(체인지메이커 액션러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 이론은 사회 혁신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에 대한 공감을 키우는 기초 교육으로 구성되며, 사회문제 해결 실습은 실제 사회 문제를 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체인지메이커 액션러닝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혁신 기업 또는 국제 개발 현장에서 한 학기 동안 자신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사회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사회혁신융합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성수밸리 및

### 사회혁신융합전공은 사회적 경제 및 사회혁신의 전문지식과 실천 능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융합적 인재 양성을 지향하며, 다양한 사회생태계를 더 나은 방식으로 기획·연계 및 실현하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육성하는 목표를 갖는다.

사회혁신융합전공은 사회적 경제 및 사회혁신의 전문지식과 실천 능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융합적 인재 양성을 지향하며, 다양한 사회생태계를 더 나은 방식으로 기획·연계 및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는 목표를 갖는다. 이때 '사회혁신'은 사회적 경제를 포함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높은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융합전공은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낫게 변화시키는 체인지메이커의 자질 함양과 실천 역량의 강화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학문 영역과 전공지식과의 융합을 지향한다. 또한 최초로 단순한 사회혁신 관련 장-단기 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사회혁신 융합전공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부전공 학위 과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여타 교육 과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국내외 NGO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혁신 비교과 과정 참여에 우선권을 받는다. 또한 사회혁신 관련 국내외 전문가의 교육 및 창업 관련 자문을 직접 받을 수도 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사회혁신 융합전공 신입생을 매 학기 모집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사회혁신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목의 내실화를 위해 매 학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봄 학기부터는 성동구청과 협력하여 교실에서만이 아닌 현장 실천형 사회 혁신가 양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소셜리빙랩 교과목을 신규 개설하기도 했다. 사회혁신융합전공 학생들의 과목 강의평가는 한양대학교 전체 강의평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혁신융합전공은 정규 교과목 이외에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이 이론적 지식만 취하는 인재가 아닌 취업 역량과 창업 역량도 길러 사회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주도형 취업 (SC 셰어링클럽, 창업 SC 셰어링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 사회적 문제,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생태계 구축과 같은 일반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회혁신융합전공의 정신이 녹아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미래의 사회혁신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사회혁신융합전공설명회

사회혁신융합전공은 2018년 1학기 첫 전공생을 모집한 이래 매년 신청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학년도에 37명의 학생이 선발되었고, 2019학년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61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다. 또한 일반 학생들에게도 수업 개방성을 높여 교양 과목으로도 사회혁신융합전공 관련 수업을 많이 수강하는 추세이다. 2020년 1학기 현재 48명의 학생이 사회혁신융합전공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메이커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혁신 융합전공 개강 전 파티

## 교과

# 사회봉사 교과목: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의 기반

#3S전략 #SDGs17 #문제해결형 #전교생이함께 #세상을바꾸다

한양대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직접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사회혁신역량을 기르는 과정으로, 사회봉사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봉사교과목은 한양대학교를 거쳐 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를 밀접하게 경험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뿐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살필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봉사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2시간의 필수소양 교육을 이수한 후에, 본인이 신청한 분야의 현장으로 직접 가서 30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봉사활동을 마친 후에는, 학생이 참여하며 느꼈던 부분들에 대하여 소감문을 작성해야 하며, 이 과정을 모두 마쳐야 사회봉사교과목 1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는 국내 대학의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UN

192개국의 합의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18년부터 사회봉사교과목과 연계하여 활동을 구성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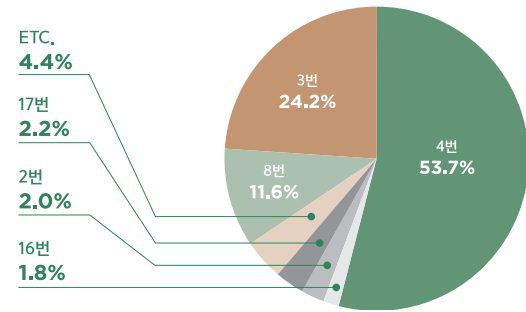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사회봉사교과목을 단순한 졸업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아닌,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해보며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인지하게끔 하는 것이 사회혁신센터의 지향점이다.**

사회봉사교과목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한양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맞는 참여 실천형 교과목이다. 한양대학교 학생이라면 모두 사회봉사교과목을 수강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사회봉사교과목은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계절학기의 4학기 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258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사랑을 실천하였다.

있다. 한양대학교는 학생들이 사회봉사교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범세계적으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직접 생각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9년 사회봉사교과목 수강생들의 SDGs 목표별 수강비율

2019년의 한양대학교는 4번 양질의 교육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1,967명, 53.7%), 3번 보건 및 웰빙(886명, 24.2%), 8번 경제성장 양질의 일자리(424명, 11.6%) 순으로 크게 관심을 보였다. 이 세 가지 목표의 활동을 선택한 비율이 무려 89.5%로,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높은 열정과 학생들의 양질의 삶을 사회에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 현장에서 직접 일자리를 체험해보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2019년에 한양대학교가 8번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활동(2018년 22%)과 12번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2018년 8%) 등 상대적으로 문제해결 중심이 아닌 활동을 줄이고, 3번 보건 및 웰빙(2018년 4%)이나 17번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2018년 1% 미만) 등 학생이 직접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포함된 목표의 활동을 늘렸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문제해결형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한양대학교는 사회봉사교과목을 단순한 '졸업 필수과목'이 아니라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해보며,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변화시킨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다. 중장기 전략인 3S(Smart-교육/연구/학과 특성화, Social Innovation-사회혁신/산학협력 특성화, Start up-창업/창직 특성화) 전략 하에, '공감 능력을 가진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사회봉사교과목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20년부터 사회봉사 교과목은 사회 문제에 단순히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직접 혁신을 통하여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해결형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느낀 점을 적는 소감문 역시 '문제 인식-원인-해결방안-실천 과정'의 양식이 추가되면서, 직접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보고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변화한다.

한양대학교는 디자인씽킹과 문제해결 메이커 프로그램을 봉사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현장에 적용하며, 지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학생들에게 유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양대학교 학생들은 사회 곳곳의 현장에서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는 문제해결 방법을 탐색하고 적용하는 사회의 리더이자 파트너로 발돋움할 수 있다.



2019년도 겨울학기 사회봉사교과목 소양교육

## 비교과 사회혁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사회혁신센터는 한양대학교 내 사회혁신의 근간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교과목과는 별개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 분야 혹은 전공에 맞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때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리더십뿐만이 아닌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도와 체인지메이커십을 기르게 된다. 한 차원 더욱 성장한 인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2019년 사회혁신센터에서 운영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2019년에는 약 350여 명의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회혁신센터는 교내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사회, 나아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날갯짓이 될 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프로그램 명	인원(명)	프로그램 내용
희망세대 리더그룹	109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개별팀으로 운영되며 사회문제 솔루션 제시, 플라스틱 프리 캠퍼스 조성 등 다양한 활동 진행
2019 APYE (Asia Pacific Youth Exchange) Korea	23	SDGs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SDGs에 기반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직접 구성하여 제안하는 프로그램
체인지메이커 멘토링캠프	89	교육소외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과 및 SDGs 멘토링 캠프
소셜창업동아리	40	소셜벤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네트워크
테스트 리빙랩	18	기술을 이용해 성동구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놀이봉사단	58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창적인 교육모듈을 활용하여 SDGs 17가지 목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멘토링 캠프
LUNA	17	APYE 프로그램을 통해 발견한 필리핀 마을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획된 태양광 가로등 프로젝트

글로벌 사회혁신 소셜벤처 창업 프로그램(이하, 소셜벤처 창업 프로그램)은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한양대학교는 학생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결과물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 제안서 및 기획서 작성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소셜벤처 창업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창업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밟아가게 된다.

#### ‘글로벌 사회혁신 소셜벤처 창업 프로그램’은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인재 양성의 ‘요람’이다.

소셜벤처 창업 프로그램의 구성은 창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 학생활동 지원을 위한 ‘소셜

벤처 창업 동아리’, 사업화를 위한 실무역량을 학습하는 ‘소셜벤처 창업 교육(부트캠프)’, 아이디어 고도화에 성공한 창업팀을 대상으로 한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피칭대회인 ‘소셜벤처 컴피티션’, 가시적 성과를 내는 창업팀에게 예비창업 씨드머니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화 지원금 지원’의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혁신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자 한다. 소셜벤처 창업동아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모이는 광장이다. 학생들은 소셜벤처 창업동아리에서 서로 교류하고, 팀을 만들며,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사회혁신센터는 지속해서 신규 동아리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팀 빌딩과 창업교육 및 창업 컴피티션에 참가를 유도하고,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8개 팀(40명)이 소셜벤처 창업동아리에서 활동하였다.

예비 창업자들은 소셜벤처 부트캠프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위하여 시장조사를 하고, 아이디어를 고도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실천 창업 교육을 받는다. 3일에서 5일간 마케팅, 재무, 아이디어 피칭 등을 교육받는다. 2019년에는, 한양대학교 재학 중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중국 현지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과제들을 실행하는 ‘한양 Red Lion 글로벌 인턴십 프로젝트’를 추가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취창업 기회 창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소셜벤처 창업 동아리를 거쳐 창업 교육을 받은 예비 창업자 학생들은, 아이디어 고도화를 마치고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피칭대회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증명할 수 있다. 2019년 11월 30일에 열린 소셜벤처 컴피티션에서는 총 17명의 예비 창업자가 경쟁하였으며, 전문 창업교육 멘토 섭외를 통하여 피칭 실습과 함께 진행되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창업팀에게는 예비창업 초기 씨드머니를 지원한다. 팀 KMK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중개 웹 플랫폼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에 11,000,000원을 지원받았다. 용역계약 대상은 한양대학교 창업팀인 주식회사 마로마브로, 교내에서 육성된 창업팀과의 협업을 통해 전략적인 자원연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팀 DONUUT은, 대학생 중고물품 판매 플랫폼 자체 개발을 위한 서버사용료와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 등 개발을 위한 기초비용을 지원받았다. 2019년 App 홍보를 위한 1차 교내 캠페인에서 홍보 행사 후, 지역아동센터에 행사 기념품 및 다과를 후원하였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홍보 활동이 연기되었으나 2020년도에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의 이러한 사회적 기업인 양성의 노력에 힘입어, 2019년 소셜벤처 창업동아리에는 신규 동아리원 40명이 모집되었으며, 2018년에 비하여 시제품 제작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가동률이 상승하였다. 글로벌 사회혁신 소셜벤처 창업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졸업생으로서, 팀 KMK는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받아 2020년 상반기에 법인사업자등록을 목표로 법인설립 절차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소셜벤처 창업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실제로 운영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소셜벤처 창업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실제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로 한 트랙을,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고 창업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하여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들로 한 트랙을 구성하고, 각 트랙에 맞게 개별 지원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창업이라는 주제가 불려일키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하여 사회가 진정 요구하는 사회혁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사회혁신 소셜벤처 창업 프로그램’은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인재 양성의 ‘요람’이다.

### #한양 Red Lion 글로벌 인턴십 프로젝트

한양 Red Lion 글로벌 인턴십 프로젝트는 2019년 11월 14일~11월 28일 모집 및 선발을 시작으로 하여, 2019년 11월 30일~12월 28일 파견 전 사전 준비를 위한 국내 프로그램, 2019년 12월 29일~2020년 1월 18일 상해 현지 프로그램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필요한 숙박비, 항공권,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과제 수행을 하는 ‘기업 트랙’과 자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팀의 창업 지원 역할인 ‘창업 트랙’의 투 트랙으로 목적에 맞게 나누어 운영되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원자들을 모집/선발 후 팀을 빌딩하고 학생들과 기업을 매칭한다. 중국 상해 현지에 가기 전에 사전 준비로, 국내에서는 기업 트랙 팀들은 기업

프로젝트 담당자와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하여 사전준비상황을 검토하고, 창업 트랙 팀들은 창업 멘토단의 지도하에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와 현지 활동 계획안을 수립한다.

상해 현지 도착 후에는, 과제 수행계획 수립을 위한 중국 시장의 이해에 대한 강의와 분야별 사업 현황 브리핑을 제공한다. 과제 수행 과정에서는,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현업 기업인들이 과제 수행 전반 과정을 지도하며, 중국 시장 전문가의 관점에서 수립하는 가설과 검증에 대한 코칭을 진행한다. 상해센터에서는 주간, 중간, 완료 단계별로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실시한다. 기업 트랙 학생들의 경우, 이 과정에서 기업의 프로젝트 담당자가 책임지고 진행하며 참가자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업무를 진행한다. 귀국 전에, 최종 발표회를 통하여 최우수 팀 하나와 트랙 별로 우수 팀을 선발한다.



2019 한양 Red Lion 글로벌 인턴십 프로젝트 최종 발표회

프로그램 종료 후,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에 성공하는 창업팀의 경우, LINC+사업단 산학협력교육센터 창업지원 예산으로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하며, 상해 스타트업 멘토단과 외부 기업인, 주재원 등 전문가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팀별 자문을 진행한다.

## 지속가능 사회혁신형 인재 육성: APYE 세상을 바꾸는 YOUTH, ‘APYE’를 통해 깨어나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8월 중순, 사회혁신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4개국(베트남, 필리핀, 대한민국, 태국) 143명의 청년들이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라이언 홀에 모였다. 2019년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총 9박 10일간 진행된 Asia Pacific Youth Exchange(이하 APYE)는 사회혁신센터와 얼반유스아카데미가 주최·주관, 아시아개발은행, 유엔개발계획과 협력하여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내, 외국인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개발목표(UN SDGs)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맞추어 지역사회 및 세계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2019 APYE에 참여했던 박찬결(건축학부/사회혁신융합전공 19학번) 학생을 인터뷰했다.



박찬결  
(건축학부/사회혁신융합전공 19학번)

‘APYE 에 참가해야겠다!’는 생각은 프로그램의 정신인 ‘Empowering YOUTH’에 심장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APYE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해주세요.

A. 반갑습니다. 국제환경구조활동가를 꿈꾸는 박찬결입니다. APYE 에 참가해야겠다는 생각은 프로그램의 정신인 ‘Empowering YOUTH’에 심장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니고 있던 꿈이 있습니다. 거대하고도 이상적인 꿈,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닌 자연과 동물들도 모두에 포함이 되는 세상을 말이에요. 하지만, 오랫동안 이 꿈을 품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 가 우선이야. 대학 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라 하면서요. 그랬기에 대학에 들어와서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학부에서의 배움을 나의 꿈을 이루는 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점점 깊어져 가는 고민의 구렁이에 빠져있을 때 참여한 것이 APYE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장롱 속의 이상에서 나와 실제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했던 순간에서 벗어나고자 결심한 순간의 객기,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 생긴 절실함이 APYE와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Q. 2019 대한민국 APYE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PYE 1일차 오프닝 단체사진

A. 작년의 APYE는 SDGs 17개 중 다양한 주제로 베트남, 필리핀, 한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Goal 10 불평등 해소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삶'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전개했습니다. 일정을 세 파트로 나눈다면 첫 번째 파트는 이틀 동안 진행되는 '리더십 개발 시간'으로 한국을 희망한 참가자들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모여 SDGs, 한국과 지역사회 이해 워크숍 APYE 사례, 디자인씽킹을 주제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참가자들이 서울, 안산, 대구로 흩어져 5일간의 현지 조사(Local Immersion)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 5~6명씩 함께 움직이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동네마다 나타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합니다. 이 파트가 APYE 활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 지역주민, 경찰서, 관공서 등 자신들의 팀 프로젝트에 필요한 대상들과 자유롭게 접촉하여 인터뷰하거나, 자료를 요청하거나, 지역전문가에게 질문을 하며 살아 숨 쉬는 현실과 마주할 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파트는 대망의 심포지엄입니다. 전국에 흩어졌던 참가자들이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 모여 팀별로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문화의 밤을 통해 서로의 과정을 축하한 후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Q. 리더십 개발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A.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활동들을 하며 APYE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써 필요한 지식과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들을 꼽자면, 먼저 'SDGs: A Blueprint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강의를 떠오르네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가지 약속들이 현재 각 나라의 정부, 시민단체, 교육과정 등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배우며, 사회를 꾸준히 변화시키는 히어로들은 일상 속에 존재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면서요! 두 번째는, 'COMMUNITY ENGAGEMENT: Mindsets & Attitudes'로 현지인들을 대할 때의 예의와 태도를 미리 연습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개념이 거대하게 느껴져 생활과는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목표들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던 문제들을 재조명한 '약속'이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위한 목표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강의를 들었을 때,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삶에 그토록 무관심했다는 걸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문제점들도 비례했을 텐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읽은 몇 줄로 그들의 삶을 이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강의는 중국, 필리핀 등 다른 나라에서 온 참여자들이 국내의 정서와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리더십 개발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은, 지식적 배움뿐만 아니라 강연 속 팀 활동을 통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참여자 간의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받았기에 남은 프로그램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Q. 팀을 이루어 활동한 것 같은데, 팀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Q. 찬결 님의 팀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A. 참가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큰 틀이 짜입니다. 우선 APYE 선발 과정에서 1, 2, 3지망 국가를 선택하고, 각자가 원했던 국가에서, 약 5~6명의 참가자들로 이뤄진 프로젝트 진행 팀을 배정받습니다. 이때 본인이 지원한 국가의 현지 학생들이 꼭 팀에 포함되는데요. 저 역시 그에 속했고 타 언어를 쓰는 참가자들과 지역 주민 간의 의사소통을 돕고, 그 나라의 문화와 분위기 등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출신 국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편성합니다. 저의 팀원들은 필리핀, 태국, 중국, 인도에서 온 참가자들이었습니다.

A. 다들 그림네요. 필리핀 독수리 Sam, 태국에서 온 분위기메이커 Ninnart, 탁월한 분석 능력을 갖춘 Jonathan, 부드러운 카리스마 중국 출신 Boya로 이뤄졌습니다. 강한 색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로젝트를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멋진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팀은 아프리카 이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AFKO"를 제안했습니다. 안산, 특히 원곡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 다문화사회 속에서도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프리카계열의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아이디어의 시작점은 케냐 출신 B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9년이 넘는 기나긴 법정 공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와 인터넷 자료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9년 1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안산시 원곡동의 이주민 인구 83%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이주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통계에서도 집계되지 않을 만큼 소수인 아프리카 이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법률 조언, 행정 복지서비스가 부족함은 물론, 태국에서의 힘든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자국의 문화공동체 역시 전무한 상황이었죠. 소수 중의 소수인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Q. 현지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A.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일정을 이야기하며 가볍게 설명했지만, 5일간의 현지 조사는 직접 발로 뛰면서 문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잡고 아이템을 만드는 데 씨앗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요. 우리 팀은 현지 조사 기간 동안 원곡동을 2~3시간씩 돌아다니며 활동했습니다. 컴퓨터 속 자료, 전문가의 강연도 도움이 되지만 보다 직접 느끼고 행동하는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큼니다. 특히, 열정을 지역과 참여자 간의 유대 속에서 얻으며, 더욱 상황에 몰두하고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가질 수 시간입니다.

Q.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었나요?

A. 지역민과의 참가자가 함께하는 활동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베일에 싸여있었는데요. 머리에 물음표를 띄우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강당에서 지역민들과 만났습니다. 명찰을 입구에 내려놓고 입장하라는 말에 더욱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바로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름을 내려놓는 순간 '나, 박찬결'의 존재 대신, 그 순간만큼은 '지구를 살아가는 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국가, 나이, 성별, 사회적 위치 등 흔히들 '나'를 규정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거대한 하나의 원을 돌면서 춤을 춰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달리고, 눕고, 웃고, 안고, 또 안기면서 계속해서 춤을 춰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다시 명찰을 집어 들 때, 2시간 동안 행복한 꿈속에서 깬 기분이었습니다. 대화가 상대방에게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서 배운 것은 논리보다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서로를 안아주는 법이었습니다.

SDGs는 결국 그 목표들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던 문제들을 재조명한 '약속'이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위한 목표

Q. 심포지엄 발표는 어땠나요? 많이 떨렸을 것 같아요.

A. 현장 조사와 동시에 발표 준비를 하며 며칠 동안 밤을 새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준비한 만큼 굉장히 떨렸는데, 정작 무대에 섰을 때 익숙한 얼굴들을 보니 진정이 되었습니다. 앉아있는 모두가 10일간 동고동락하며 친해졌기 때문이었을까요. 발표는 초롱초롱한 눈빛을 뜨겁게 서로 주고받으며 무사히 잘 마무리 했습니다. APYE가 끝난 지 반년이 되어 가는 동안 그때의 여정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APYE가 아름다웠던 것은 '가능성'을 사회에 심는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더 나은 세상으로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끼리 처음 마주하는 지역에서 함께 공통의 문제점을 찾아 며칠 밤낮 프로젝트 모델을 발전시키고, 퍼실리테이터와 지역 주민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팀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경험이 너무 귀중했습니다. APYE는 끝났지만, 그 때 배운 것들은 계속해서 저의 삶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9 APYE 수상팀 중 하나인 서울 9팀은 'Super Ann'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사회적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사회적 감정 증진을 목표로 '자신을 알고 사회를 알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박찬결 학생의 팀은 아쉽게도 우수 프로젝트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서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현지에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며 벅찬 감정을 공유했다고 한다. 2019 APYE 본선 수상 팀은 안산 3팀(AT3), 대구 6팀(DT6), 그리고 서울 9팀(ST9)이다.

Q.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내년 APYE를 기획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첫째는 APYE 심포지엄 발표 형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워낙 많은 인원이 발표를 하기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렇기에 참여자들 간에 질의응답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둘째는 심사를 교수님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하시는데, 참가자들 또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 발표에 더욱 집중하고 다양한 관점과 해결책이 더해지지 않을까 라는 점입니다.

Q. APYE 참가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과감히 뛰어드세요!" 스스로가 이렇게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잠재능력을 모르지만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씨앗 그 자체입니다. 외국어 능력,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 등 많은 걱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밖의 다양한 이유로 망설이고 계실 수 있습니다. APYE는 '내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멋진 '나'를 꿈꾸는 분이라면, 꼭 참여해보셨으면 합니다.

박찬결 학생은 APYE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넓은 바다를 향해 손잡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바다와 같이 넓은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심 있는 이들이 모일 때 문제점 가득한 세계가 곧 무궁무진한 해결책의 바다로 바뀐다고 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다음 APYE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



# 한눈에 보는

## APYE Asia Pacific Youth Exchange

DAY 0

### 입국&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APYE 참가자들의 입국 모습

DAY 1~2

### 오프닝: 리더십 개발훈련 (팀빌딩 워크숍, 디자인 씹킹 워크숍)



리더십 개발훈련



지역주민 인터뷰 및 설문조사

DAY 3~8

### 로컬 이머전

지역주민 인터뷰 및 설문조사, 프로젝트 설계, 지역민과 함께하는 활동, 전문가 워크숍

프로젝트 설계



지역민과 함께하는 활동



전문가 워크숍



# 한눈에 보는

## APYE Asia Pacific Youth Exchange

DAY 9

심포지엄



심포지엄 오픈닝



APYE 수료식



심포지엄 클로징



피칭

## 글로벌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아쇼카U 네트워크: 한양대 ‘아쇼카U’ 중심으로 “글로벌 사회혁신 선도”

한양대학교는 동아시아 최초로 글로벌 사회혁신 대학 네트워크 ‘아쇼카U 체인지메이커캠퍼스’에 가입한 이후 대학의 교육혁신과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이행하고 있다. 학생들을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유수 대학의 자원과 연결하여,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교는 지난 7월, 베트남 하노이 소재의 명문대학인 Foreign Trade University(이하 외상대학)와 2주간의 사회적기업 컨설팅 캠프를 공동주최한 바 있다. 경영대학 신현상 교수의 지도 하에 14명의 학부생이 외상대학 소속 학생들과 함께 베트남 현지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교수진과 운영진은 아쇼카U 네트워크에서 파생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름	소속
Jacob Fohitung	Babson College
Zahin Hussain	한양대학교 MBA
이호영	Columbia University
김광욱	Asia Foundation
이재명	Asia Foundation
신현준	Harvard University
박상욱	Harvard University
신현상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표 1. 캠프 교수진 및 운영진 명단

본 프로그램은 베트남 언론에 보도되는 등, 현지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컨설팅의 수혜자인 현지의 사회적기업인들의 경우,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대다수가 우리 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하며, 콘텐츠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북미지역의 아쇼카U 가입대학과도 활발한 교류가 진행 중이다. 본교는 아쇼카U 체인지메이커캠퍼스인 캐나다 ‘Simon Fraser University’,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와 인도 ‘SP Jain School of Management’와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학교별로 교수진과 학생 10명이 기업가정신, 글로벌사회혁신, 공감과 임팩트 등 총 4개의 수업 모듈을 실행하여, 다양한 글로벌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본교는 아쇼카U를 중심으로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과의 교류 증진에 힘쓰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부터 인도와 베트남에 이르는 글로벌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무대로 성장하는 한양의 체인지메이커의 이야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베트남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Impact Consulting Camp



아쇼카U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양인의  
체인지메이커십

## 글로벌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SSIR 한국어판 발간

지난 2018년 2월 한양대학교는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이하 SSIR) 한국어판 발행에 대한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SSIR은 사회혁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2003년 처음 창간돼 분기별로 발행된 학술지로, 16년의 역사를 지닌 만큼 국내외로 두터운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다. 비영리 경영, 자선활동, 공동 시민권, 사회적 변화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SSIR의 번역본 발행을 맡은 한양대학교는 학기 당 1개호, 2019년 총 2개 호의 한국어판을 발행했으며 2학기에는 SSIR을 기반으로 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내 대학이 판권을 보유한 사례는 한양대학교가 유일하며, SSIR 독점계약을 통해 사회혁신의 트렌드를 전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간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아쇼카U 체인지메이커 캠퍼스로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있다.

2019 SSIR 한국어판 발간 사업은 한양대학교 내부에서 진행됐다. 1차 번역에는 사회혁신융합전공 학부생 인력 풀을 활용해 학생들이 사회혁신 콘텐츠를 경험하고, 사회혁신에 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1차 감수에는 국내 소셜섹터 현업자 및 학계 전문가 인력 풀을 활용해 전문성을 높였다. 번역과 감수가 끝나면, 학교기업 L.A.C. Studio를 통해 구독권을 판매했다. 그 결과 포스코, 신세계, SK, CJ 등 다양한 기업 및 기관이 정기구독과 광고 게재를 신청하는 성과를 낳았다.

2학기에 진행된 SSIR 2019 글로벌 임팩트 컨퍼런스는 10월 29~30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개최되었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집합적 영향력의 확대: 교훈과 도전'을 주제로 개최된 본 행사에서는 사회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 한양대학교는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나은미래, 아름다운재단과 사회공헌 플랫폼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사회공헌, 사회책임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한 MOU는 ▲ 기업과 지역사회 사회공헌 교육사업 ▲ 사회공헌/사회책임 분야 연구자료 발간사업 등을 공동 추진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미국, 중국 등 10여 개국의 해외 연사들이 참여한 본 행사에서는 함께 주최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을 위한 MOU를 맺으며 글로벌 차원의 콜렉티브 임팩트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약 150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2019년도 Spring호

사회혁신센터는 2019년도를 맞아 SSIR 사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재정립할 예정이다. 출판 과정의 전문성, 신속성을 아웃소싱을 통해 강화하고, 현장실습,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 학부생이 직접 참가할 수 있다는 기존 장점은 살린다는 것이다. 올해로 3년차가 된 SSIR 한국어판 발간 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Part 2 아젠다의 실천 방향 제시



한양대학교는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한국어판 발행에 대한 독점계약을  
통해 2019년 2개 호를 발행했으며  
학기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집합적 영향력  
의 확대: 교훈과 도전’**이라는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SSIR 글로벌 임팩트 컨퍼런스 사진

## 집합적 임팩트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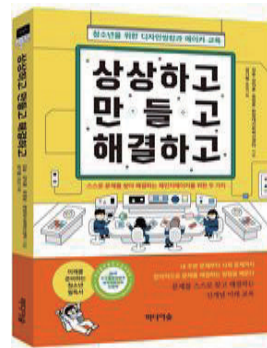
# 디자인 씽킹과 지역 사회 혁신의 조화, CMG 지역사회 사회혁신 플랫폼: SDGs Changer's Lab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향은 도전정신, 협력, 혁신, 창의성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디자인사고 및 체인지메이커 교육을 펼치는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디자인사고에 기반한 메이커스, 디자인사고, 소셜벤처, 프로젝트 러닝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교육 현장에 활발하게 적용 중이며 이는 21세기형 미래인재 양성 교육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한양대학교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시대적 요청에 온전히 부응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창업진흥원에서 2022년까지 메이커스페이스 기관을 350개 구축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선 2022년까지 서울형 메이커교육 개발을 위해 100억을 투자하는 등 본격적으로 유아·청소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한국형 메이커교육 과정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양대학교는 현재 한국의 메이커교육이 단순 체험, 따라 하기식 위주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여 실질적인 디자인 사고 기반의 미래역량을 갖춘 수 있도록 하는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TMD교육그룹, MYSC, 3D플러스, 메이커스, 퍼듀대 등 국내외 메이커 전문기관들과 함께 SDGs 17개 테마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메이커 교육 콘텐츠인 「SDGs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 구축한 것이다.

프로그램 콘텐츠는 SDGs, 디자인씽킹, 톱커링, 메이커, 소셜벤처 등에 대해 실습 체험해볼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이는 메이커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활용하기 쉽게 제작되어 있으며, 그 구성으로는 1. 메이커 교재(Thinker) '원더북', 2. SDGs 리터러시 보드게임 키트, 3. 메이커 보드게임 키트, 4. 메이커 교재(Maker) '상상하고, 만들고, 해결하고'가 있다.



메이커교재  
'상상하고, 만들고, 해결하고'



SDGs 리터러시 보드게임 키트

실제 위 콘텐츠의 청소년 및 교사 대상 필드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후, 교육현장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였다. 현재는 한국교원캠퍼스와 함께 메이커 교사 연수과정을 개발 중이다. 이 과정에서 틈틈이 협력 기관 TMD교육그룹과 함께 퍼실리테이팅, 메이킹 방법론 등을 보강하는 콘텐츠 강화 작업을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현재 한국의 메이커교육이 단순 체험, 따라 하기식 위주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여 실질적인 디자인 사고 기반의 미래역량을 갖춘 수 있도록 하는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SDGs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이 사업화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첫 번째로 메이커교육 수요의 급증이다. 한양대학교는 철저한 시장생태계 분석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메이커스페이스 및 유사 형태의 교육공간이 2021년까지 1,000개 이상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SW 교육 열풍과 맞물려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디자인씽킹과 메이커교육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한 몫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는 차별화된 콘텐츠이다. 한양대학교만의 「SDGs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은 타 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소셜벤처'를 주제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문제 해결 기반의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돕는다. 이는 타 기관에서 보급 중인 장비, SW 코딩 위주의 메이커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어 있다. 게다가, SDGs에 대한 깊은 이해,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션 경험, 프로토타입 메이킹, 모의 창업 경험 등을 갖춘 수 있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 융합 역량을 갖는데 탁월하다. 한양대학교는 이러한 요인들을 토대로 사업의 전국적인 보급을 통해 디자인 사고 기반의 인재 양성을 꿈꾼다.

사회혁신센터는 위 프로그램을 청소년 혁신 대표교육으로 자리매김하게 함과 동시에 교육 대상을 대학생, 청년, 중장년으로도 확산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초, 중, 고교 총 22,000여 개교 및 방과 후 학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전국 미래인재 교육센터에 보급하는 것이 현재의 목적이다. 또한, TMD교육그룹과 협력하여 진로체험센터, 창의교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교육지원기관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청년 대상으로는 창업 교육, 혁신역량 교육 형태로 본 프로그램을 일괄 및 부분 적용 가능하며 경력 단절 여성 및 중장년층에도 전문 강사 양성 교육 과정 등의 항목으로 수요 기관에 파견 진행할 계획이다.

SDGs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은 다양한 교육 현장의 수요에 즉시 적용 가능한 총 9가지의 교구, 도서, 교육프로그램으로 모듈을 분류하고 있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교구

- 1. SDGs 리터러시 보드게임**
  - SDGs의 17개 테마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보드게임
- 2. 메이커 키트**
  - 창의적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보드게임 키트
  - 글로벌문제, 지역사회문제, 실생활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키트
- 3. 소셜벤처 보드게임(예정)**
  - 사회문제 해결의 지속성을 다루는 수익모델 개발에 포커싱한 모의창업 키트

### 교재 도서

- 4. 원더북 프로그램북**
  - 6개 행성의 문제해결을 통해 학습하는 SDGs 문제해결 공식 워크북
- 5. 메이커 입문 도서(예정)**
  - 메이커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사 및 학부모 대상 도서

### 교육 프로그램

- 6. 입문 프로그램(체험형)**
  - SDGs 체인지메이커 체험을 도울 수 있는 리터러시 수업
- 7. 캠프/해커톤**
  - 캠프, 경진대회 형태로 경험하는 SDGs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
- 8. 중기 프로그램(8-12회기)**
  - 학교 단위에서 채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창의진로 프로그램)
- 9. 원격 교사연수 과정**
  - 교사 대상 학점인정 과정으로 SDGs 체인지메이커 교육을 위한 전문가 과정

## 2020 놀이봉사단 Play Changemaker



만반의 준비를 마친 한양대학교는 사업의 창의적 발전과 효율적인 보급 및 유통을 위해 체인지메이커 협력 기관인 TMD교육그룹, 다빈치하우스 등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 파트너를 맺었다. 그리고 디자인씽킹 기반 신산업 체인지메이커 그룹의 교육브랜드 “SDGs Changer’s Lab”을 개발하였다. 이후 위의 9가지 모듈 중 “SDGs 리터러시 보드게임”, “메이커 키트”를 각 1,000개씩 양산 완료하였다.

한양대학교는 개발한 교구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Play Changemaker Camp’을 시범 운영하였다. 오프라인으로 2019년 12월 약 한 달간 4차에 걸쳐, 온라인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약 세 달간 성인, 대학생, 고등학생, 초중교 교원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진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의 기간 중 3일간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지자체와 연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모듈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멘토들은 놀이 방법론에 대한 이론학습을 하여 퍼실리테이터로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 메이킹, 독서 기반의 창의 멘토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멘티들은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위 캠프가 본인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사회혁신센터는 초기 성공사례 발굴을 통한 홍보자료 제작 및 대외 홍보마케팅을 진행하여 사업의 크기를 확장시킨다는 비전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비전 아래, ‘SDGs changer’s lab’ 사업은 공공기관, NGO, 학교 등과 연계하여 체험형, 캠프형, 아카데미형 등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시도 및 레퍼런스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체인지메이커 인재 발굴에 한 획을 그을 한양대학교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체인지메이커 캠프 오프라인 교육



체인지메이커 캠프 사전교육





한양대학교에는 연 매출 3억(2020.2.28 기준 매출원가)이 가까운 기업이 있다.  
바로 'L.A.C Studio'이다. 2018년 11월에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 2019년 바쁘게 달려온  
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사회혁신 인프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 보드게임으로 세상을 바꾸다! 변화의 숨은 주역: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즐겁게 알리는 L.A.C Studio!

'모두의 마블마블마블~' 한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휴대폰에서 손을 못 놓았던 원인이었던 게임이 있다. 이처럼 오락적 재미가 탁월하면서도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임은 없을까라는 호기심에서 착안되어 개발된 것이 SDGs 리터러시 보드게임이다. 이 게임에서는 협력의 가치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며, 게임을 신나게 플레이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사회혁신의 의미에 대해 배울 수 있다. L.A.C Studio에서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에 이 게임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

## 수원시민들과 보드게임을 하며 진행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살롱'

2019년 10월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 살롱'이 열렸다. 수원시와 수원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L.A.C Studio는 해당 살롱의 한 세션을 맡아 진행하였다. 세션은 리터러시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들이 수원시의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끔 하도록 진행되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정책 살롱 참가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직접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체인지메이커의 씨앗을 심다

두 번째 사례는 2019년 12월 15일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진행된 'Play Changemaker Workshop'이다. 이날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도 'SDGs 리터러시 보드게임' 시간이 특히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게임의 실행목적은 실전적 교수 방법을 전달하는 것으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었다. 보드게임의 기대효과는 일회적인 교육 실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보드게임 구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범대학생들이 활용할 교구재의 역할을 하고, 자체 실습을 통해 게임의 활용 능력을 높일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 시민성 교육을 쉽게 알리고, 미래의 체인지메이커가 될 학생들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한국의 지역사회와 교육 사회가 'SDGs 리터러시 보드게임', 'Makers 보드게임'을 이용하여 정책과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사회혁신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 빠르게 L.A.C Studio는 올해에는 보드게임 영문판을 보급하여 즐거움을 통한 변화를 더욱 넓게 퍼뜨리고자 한다.

L.A.C Studio는 교구재를 활용한 지속가능발전프로그램의 운영 및 홍보,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한국어판 발간 및 판매, 글로벌 소셜벤처 및 지역 소상공인 연계 대학 기념품 제작 판매를 하며 자체적으로 매출을 꾸준히 누적하고 있다. 이 돈은 또 다른 사회혁신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되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 한양대학생들과 나가시 시민들이 함께 KAINA의 성장을 일구다

L.A.C Studio는 지속적인 사회혁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체인지메이커액셀러닝'을 운영하고 있다. 체인지메이커액셀러닝은 사회혁신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는 1학과와 2학기에 필리핀 나가시 소재 소셜벤처 KAINA에 현장실습생 11명(프로그램 연장 이수 3명)을 파견했다. L.A.C Studio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학생들과 현지 직원들이 협업하여 회사를 견고히 하는데 지원했다. 그 결과 KAINA는 필리핀 행정기관에 정식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지인들의 응원에 힘입어 2호점을 오픈하는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국내여론의 관심 또한 잡아 사회혁신의 우수사례로 9회의 언론보도에 다뤄지기도 하였다. 2019년 KOICA(한국국제협력단) 민간협력 '한양-필리핀 사회연대경제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보다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 이후로는 지속가능한 사업화를 위해 2020년부터 1년간의 지역조사를 포함하여 2023년까지 총 4년간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매장확장 및 파견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혁신 인재가 21세기 리더로 주목받는 가운데, 이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경험과 기업가정신은 학생들이 체인지메이커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9년 열심히 달려와 매번 주목받는 결과를 내는 L.A.C Studio의 원동력은, 함께 뛰어온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L.A.C Studio는 2020년에도 학생들과 함께 멈추지 않고 달려 예정이다.

수원컨벤션센터 지속가능발전 정책 살롱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워크숍



# 집합적 임팩트 창출 성동 착한기업 사업: 오늘 점심은 '착한 상점'에서, 어때요?

'오늘 뭐 먹지?' 등곳길에도, 강의 시간에도, 점심을 위해 왕십리로 걸어 내려가는 길에도 항상 고민하는 문제다. 한양대학교 구성원들은 광대한 학교 안팎의 식사 선택지 앞에 매일 치열한 내적 갈등을 겪는다. 이런 한양인들의 선택을 도와주고자 사회혁신센터가 작년 '성동 착한기업' 사업을 통해 '착한 상점' 총 스물세 곳을 선정했다. 2017년부터 시작한 착한기업 사업은 지역사회의 소상공인과 대학의 건강한 산학협력모델을 통해 '사회혁신 산학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이 협업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동반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목적도 있다.



착한기업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사진

**2017년부터 시작한 착한기업 사업은 지역사회의 소상공인과 대학의 건강한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사회혁신 산학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이 협업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동반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목적도 있다.**

2019 착한 상점은 11월 22일 열린 시장축제를 통해 각 상점의 축제 기여도와 착한 상점 컨셉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해 최종 선정했다. 2019년도의 착한 상점 컨셉은 사회혁신센터와 착한기업 서포터즈가 선정한 '친숙한', '교감하는', '친환경적인', '활동할 수 있는'의 네 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오랜 기간 우리 대학 앞에서 학생들의 끼니를 책임져온 '친숙한' 매장,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와 '교감하는' 매장,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재활용에 앞서는 '친환경적인' 매장, 향후 우리 대학과 협업할 의지가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매장이 선정됐다. 한양대학교 학생이라면 잘 알고 있는 한양대역 앞 베트남쌀국수, 오징어바다, 금룡 등이 착한 상점에 포함됐다.

선정된 착한 상점들은 한양대학교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는다. 먼저 상점에 방문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명패나 앞치마를 배부한다. '교감하는' 매장에는 착한상점 서포터즈가 제작한 영문·중문 메뉴판을 새로 작업해 제공하기도 했다. 홍보 혜택도 다양하다. 교내외 공문,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착한 상점 이용을 장려한다. 2020년에는 착한 상점 지도와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교내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사업 실행 3년 차인 2019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유독 돋보였다. 10월부터 상점가 축제와 착한기업 서포터즈 선발 논의를 시작하여 11월 선발된 서포터즈 열세 명은 상점가 축제 서포터즈(5명), 축제 당일 서포터즈(2명), 번역 서포터즈(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개최된 한양대 앞 상점가와 한양대학교가 함께하는 "놀면 뭐하니" 축제는 지난 11월 21일과 22일 열렸으며, 성동 새마을금고 한양점에서는 지역사회 청년들이 기획하고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공연한 '한양 버스킹뽕유'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다. 이번 축제에는 한양대학교 학생만 300명가량 참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회혁신센터는 이번 시장축제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대학, 그리고 상점가의 주 이용층인 한양대학교 학생 모두가 공감하는 착한기업의 이미지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가올 착한기업 사업에서도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착한기업 문화를 더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놀면 뭐하니" 상점가 축제에서 공연하고 있는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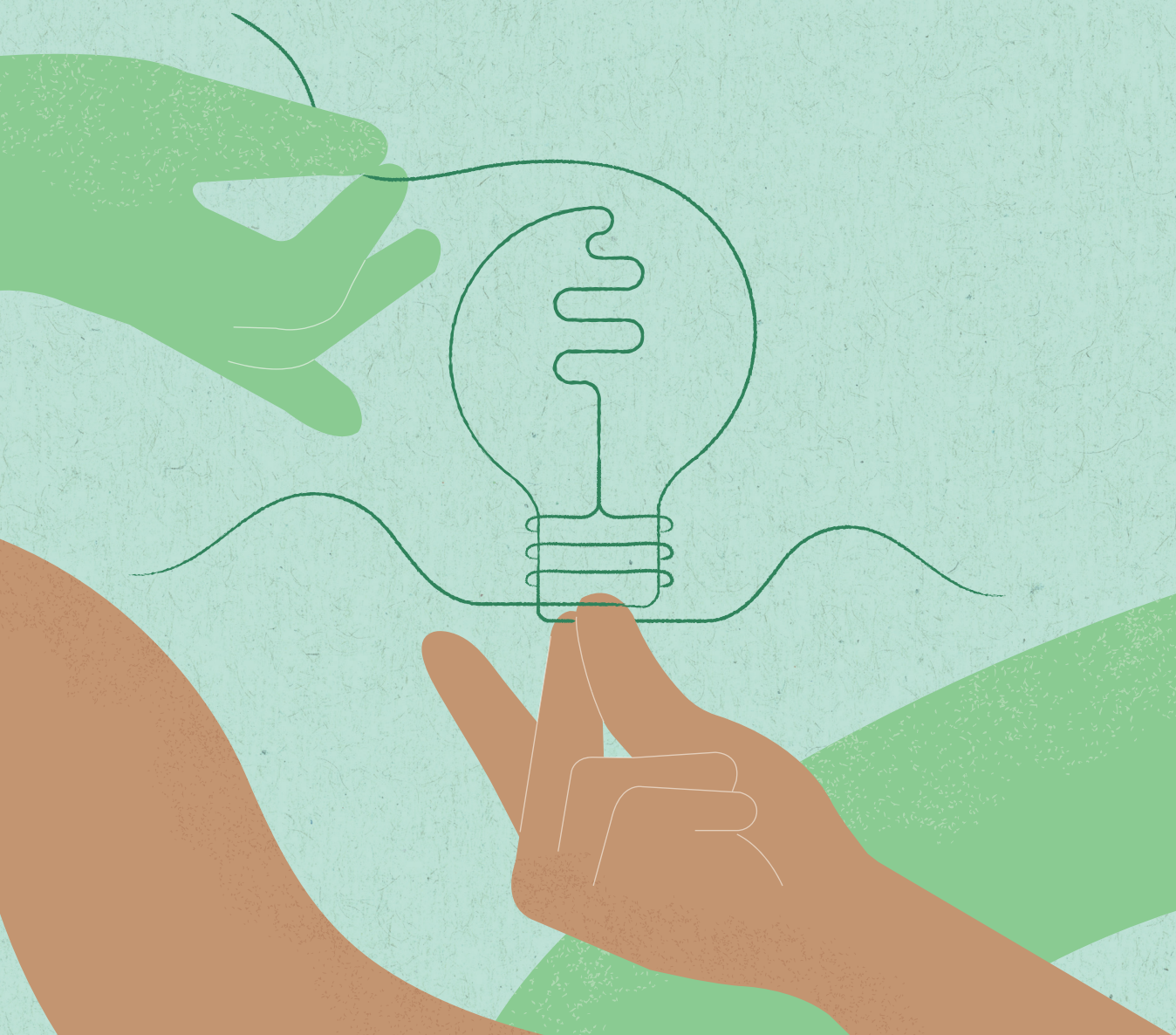
"놀면 뭐하니" 축제 이벤트 진행 모습



# Part 3

## 사회혁신 성과 도출

Love  
Action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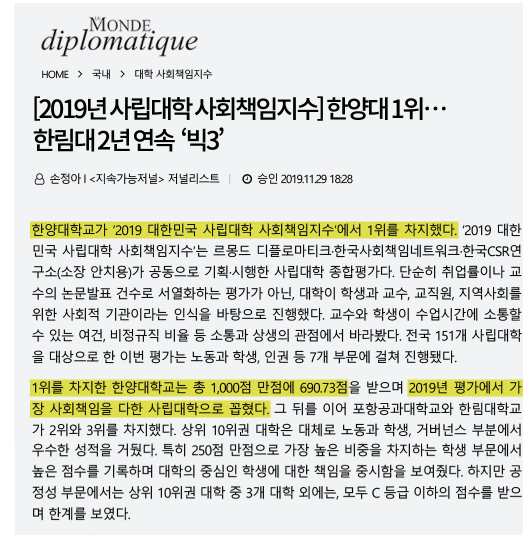
사회혁신 지수 상승

## 사회혁신을 통해 세상 안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다: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THE세계대학 영향력 순위

한양대학교는 2019년 한 해 동안 사회혁신의 근간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진정한 사회혁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체계적인 시스템하에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노력은 결국 그 빛을 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 세계가 한양대학교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 #2019 대한민국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1위

2019년 11월 29일, 프랑스의 전문시사지 로몽드 디플로마티크는 한양대학교가 국내 사립대학에서 2019년 한해 가장 사회책임을 다하는 대학으로 선정되었음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란, 로몽드 디플로마티크·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한국CSR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시행하여 평가한 지수이다. 단순한 취업률이나 논문발표 건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일반적인 여타 대학 평가들과는 달리, 대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기저 아래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지표화하여 내리는 평가이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한양대학교는 노동과 지역사회 등 7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 평가에서 총 1,000점 만점에 690.73점을 받았다. 특히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학생 1인당 교육비, 해외대학 파견 학생 비율 등의 지표였다. 환경, 지역사회 부문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 #2020 THE세계대학영향력 세계 91위

2020년 4월, 지난 11월 대한민국 사립대학에서 사회책임지수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한양대학교는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즈고등교육(THE, Times Higher Education)이 선정한 세계대학영향력 순위에서 쟁쟁한 89개국의 대학들을 제치고 100위권 안에 안착한 것이다. 전년도 순위에서 101~200위권에 만족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진 순위이다.

세계대학영향력 순위란, 유엔이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가지 항목을 지표로 반영하여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의 정도로 선정된다. 한양대학교는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 '깨끗한 물과 위생' 부문에서 특히 준수한 성적을 보였다. 한양대학교가 대학, 그리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세계가 인정한 셈이다. 한양대학교는 2020년에도 사회혁신을 위해 더 넓은 세상으로 성큼성큼 전진할 예정이다.

# 포용성과 연결성을 갖춘 사회혁신형 인재 배출 학생과 지역의 교류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놀이봉사단: Play Changemaker

체인지메이커 양성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위상을 가진 한양대학교는 '사회적 경제 리더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대학생 간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실재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 과정에 사회적 협동조합 락(LAC)의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각 기관의 특징에 맞는 역할 배분을 통해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사회적 경제 리더 과정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경제 이론학습 및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 메이킹, 독서 기반의 멘토 교육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사회적 경제 리더 과정에서는 현장실습을 '플레이 체인지메이커(Play Changemaker)' 멘토링 캠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2019년 11월 선발된 플레이 체인지메이커 퍼실리테이터 58명은 2020년 1월 17일부터 11일까지 31시간 교육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발된 학생들은 이러한 체계적인 양성 교육을 통해 체인지메이커 퍼실리테이터이자 멘토로서 사회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동시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체인지메이커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며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디자인 씽킹을 멘티에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성 교육 이후에는 멘토링 캠프를 실시하여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량을 본격적으로 뽐낼 수 있었다.

멘토링 캠프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멘토링 캠프를 진행하게 된 학교 및 지역은 모두 5개로 경상남도 남해 해성고등학교,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서울특별시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고등학교, 전라남도 광양제철고등학교가 선정되었다.

멘토링 캠프에서는 체인지메이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 혁신에 대한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 또한, 멘토 멘티 간의 MBTI 검사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SDGs Changer's Lab의 SDGs 리터러시 보드게임 교육 모듈을 실제로 이용하며 멘티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념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디자인씽킹에 대한 교육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체인지메이커십을 심어주었다.

회기	커리큘럼	구성안
1회기	사회혁신과 사회적가치에 다가가기: 역량&자질 / 규칙정하기	· 사회혁신과 사회적가치 알기 쉽게 이해하기 · 사회혁신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그룹별 토론: 갖춰야 할 역량 및 자질 / 그룹 규칙정하기
2회기	체인지메이커란 무엇인가?: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과 사회적경제	· 체인지메이커의 정의와 역할 · 세상을 변화시킨 체인지메이커 이야기 ·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통한 사회적경제 이해
3회기	지역 사회문제와 디자인씽킹 이론: 성동구 이슈 소개 및 토론	· 성동구에 내재된 사회문제 알아보기 ·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위한 디자인씽킹 ·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지역문제 솔루션 토론
4회기	체인지메이커의 사회문제 해결 실습: 원도우패닝을 통한 프로토타입 구성	· 원도우패닝이란 무엇인가? · 그룹별 원도우패닝을 활용한 계획 세우기 · 프로토타입 구성을 통한 결과물 도출

## 멘토링 캠프에서는 체인지메이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

11월부터 진행된 플레이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낸 참여 학생들과 관계자들은 현장실습 결과 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활동의 성과와 개선할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안동 풍산고등학교의 멘토링 캠프에 참가한 강준호 학생(교육공학과, 14학번)은 “다양한 전공의 멘토들이 있어서 사회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며 그 소감을 밝혔다. 멘티로서 참가한 풍산고의 한 학생은 “멘토링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진로를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라며 이번 멘토링 캠프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사회혁신센터에서는 멘토링 캠프 이후로도 참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활동 연계를 통해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기수별로 활동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고 고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향후 2020~2021년에는 사업 확장 방안에 대해 토의하며 상, 하반기 총 2기수를 모집하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고회 및 설문 등을 통해 지속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며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안동 풍산고등학교 1.28 ~ 2.1



한양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1.21 ~ 2.3



광양제철고등학교 1.28 ~ 2.1



퍼실리테이터 사전교육 사진

## 포용성과 연결성을 갖춘 사회혁신형 인재 배출 교육 소외지역의 빛을 밝히다, 체인지메이커 멘토링 캠프

체인지메이커스 멘토링 캠프는 교육 소외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하계에 진행되는 대학생 재능 봉사 캠프이다. 이전에는 창의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나 2018년 이후로 '체인지메이커 멘토링 캠프'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여 기존 프로그램에 사회혁신센터만의 색깔을 더했다. 2019년에는 이례적으로 하계와 동계 총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체인지메이커스 멘토링 캠프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각 팀이 독자적으로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여 각자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2019년에는 학생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함으로써 멘티와 멘토 모두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끔 한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2019년 체인지메이커 멘토링 캠프 프로그램은 모집, 선발, 워크숍, 캠프 준비, 발대식, 캠프의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이 중 멘토 워크숍 단계에서는 멘토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 안내하는 멘토링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SDGs 워크숍까지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멘토링 기초 교육

시간에서는 학교기업 L.A.C Studio를 통해 멘토링 도서를 출간한 '멘토링을 부탁해'의 저자 심영우 학생이 본인이 겪었던 멘토링 경험과 선배로서의 조언을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뒤를 이은 SDGs 워크숍에서는 멘토들로 하여금 멘티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SDGs 리터러시 보드게임 및 메이커스 플레이 키트를 활용한 교육법을 제시하였다.

2019년 체인지메이커 멘토링 캠프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팀들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봉사 동아리 혹은 개별 참가자들로 모인 라온하제, 휴머니스트, 캠프, 한양ABC, 하남마음 팀들이 참여하여 진로 상담, 영어교육 등 각자만의 특징이 가득한 멘토링 캠프를 기획하였다. 이들은 각각 전북, 경남, 충북 등 전국 곳곳의 지역으로 흩어져 본인들이 가진 지식을 최대한으로 나누었다. 변수는 있었다. 동계 캠프 기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기간과 겹쳐져 한양캠프 팀의 캠프가 직전에 무산된 것이다. 해당 팀은 본인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김제교육지원청에 전달하는 등 최선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2019년 한해 진행된 체인지메이커스 멘토링 캠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	팀명	기간	지역	학교	멘티
하계	라온하제	2019.08.05~2019.08.09	충북	충원고등학교	29명
	휴머니스트	2019.07.29~2019.08.02	경남	함성중학교	34명
	한양캠프	2019.07.29~2019.08.02	전북	김제교육지원청	38명
	한양 ABC	2019.07.28~2019.08.01	전북	운호지역아동센터	155명
동계	라온하제	2020.01.28~2020.01.31	부산	영도여자고등학교	22명
	한양캠프	영상 촬영으로 대체	전북	김제교육지원청	30명
	하남마음	2020.01.28~2020.01.31	전북	원광여자고등학교	5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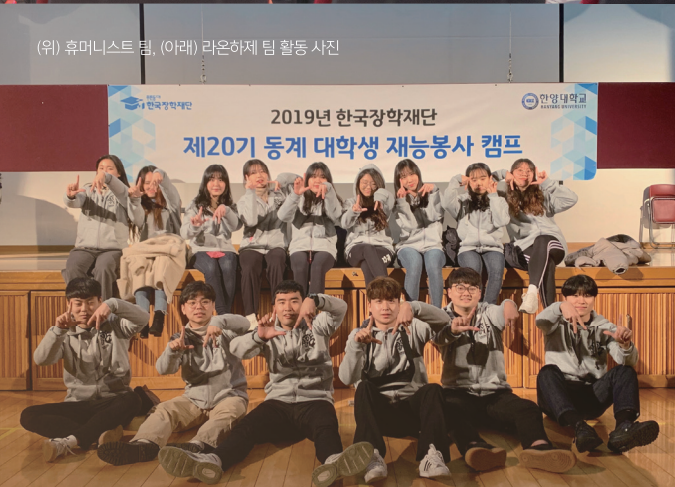
체인지메이커스 멘토링 캠프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청소년을 위한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생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과 효능감을 제고시킬 수 있다. 나아가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가치를 포함시켜 리더십은 물론, 체인지메이커십까지 함양할 수 있었다. 멘토들과 멘티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인지메이커스 멘토링 캠프 일원의 내년도 활약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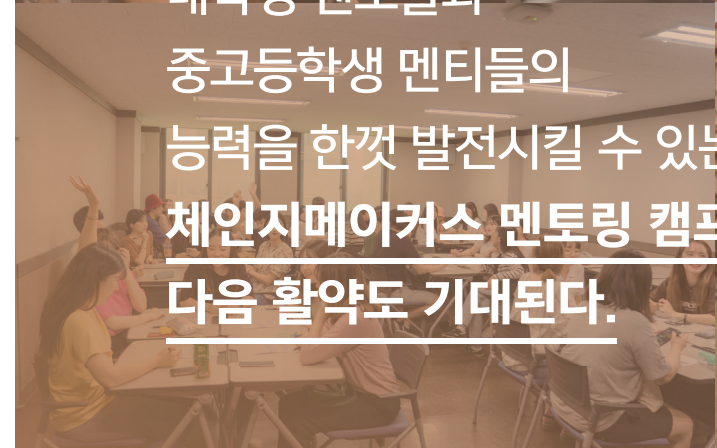
제19기 하계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발대식 사진



멘토 워크숍 사진



(위) 휴머니스트 팀, (아래) 라온하제 팀 활동 사진



대학생 멘토들과  
중고등학생 멘티들의  
능력을 한껏 발전시킬 수 있는  
체인지메이커스 멘토링 캠프의  
다음 활약도 기대된다.



## 포용성과 연결성을 갖춘 사회혁신형 인재 배출

# 사회혁신형 봉사문화를 창출하는 희망한대 리더그룹

희망한대 리더그룹은 사회혁신센터 소속의 학생 그룹으로, 한양대학교 학생의 사회공헌 활동과 대학생으로서의 사회혁신과 봉사문화 창출에 앞장설 수 있는 프로젝트 성 팀들로 구성되어 있다.

### 희망한대 리더그룹 소속 팀들은 다양한 주제로 사회공헌 활동과 봉사문화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개설 주체에 따라 센터 주도형과 학생 주도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센터 주도형 프로젝트는 사회혁신의 홍보나 자체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내부적인 요구에 따라 운영체계가 갖춰진다. 사회혁신센터에서는 신규 프로젝트와 어울리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선발한 뒤, 학기제 혹은 1년 단위로 운영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성과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내부 논의 후 연장, 확대,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는 학생 개인 혹은 단체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 기획안을 사회혁신센터와 함께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학생들 스스로의 빛나는 아이디어로 공식적인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해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혁신센터 내부에서는 학생 혹은 팀이 제안한 기획안을 토대로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사회 공헌 및 사회혁신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프로젝트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학생 주도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기획하는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주도성을 함양시킨다. 각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팀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에 개입하고 학생 각자의 목표 지향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공동체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한다.

현재 희망한대 리더그룹 소속 팀은 총 7개이며, 2020년 2개의 신규 프로젝트팀이 합류할 예정이다.

#### 1) 대트리스

대트리스는 한양대학교 애지문에 위치한 소액기부 플랫폼으로 대학생 기부문화 활성화와 SDGs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개발되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가장 접근성이 좋은 한양대역 2번 출구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 11명이 활동 중이며 각자 콘텐츠 기획과 개발과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장애인 여부와 관계 없이 다양한 배리어프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 스포츠 플랫폼 '운동장', 홀몸어르신들의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위한 모금을 진행하는 경영대 사회연대동아리 '이끼', 국내 저소득가정의 10대 소녀들을 위해 여성용품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지파운데이션'의 모금 캠페인 등을 홍보하였다. 뜻깊은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곳에서 각종 홍보와 협업 제의가 들어오기도 한다. 2020년 3월에는 이례적으로 창업동아리 블루라인트임과 협업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을 게재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휴업에 들어간 필리핀 카이나식당의 직원들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대트리스 키오스크

#### 2) 유스체인지메이커스

유스체인지메이커스(YOUTH CHANGE MAKERS)는 청소년 체인지 메이커를 양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고등학생이 SDGs와 체인지 메이커십에 대해 이해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끔 한다. 2019년에는 총 10명의 사무국원과 27명의 멘티가 만나 사회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도출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 3) 미디어홍보단

미디어 홍보단은 기자부와 사진영상부로 나뉘어 사회혁신 센터 내 사회혁신 프로젝트 및 행사를 취재하여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교내에서 진행되는 사회혁신 프로그램 및 행사에 대한 홍보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통해 리더십 함양 기회를 가진다. 더불어 사회혁신 실천 교내 구성원을 발굴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회혁신과 봉사 정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이다. 올해부터는 규모가 대폭 확장되어 기자부 5명, 사진/영상부 5명 총 10명의 인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4) 환경기획단

환경기획단은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각종 학회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캠퍼스 내에 세척기를 비치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캠퍼스 내에서 텀블러를 사용할 것을 독려하는 등 그린캠퍼스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사회혁신 동아리 SEN과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5) 십시일냥

십시일냥은 교내 캠퍼스에 서식하고 있는 고양이들을 보살피며 고양이와 학생들의 공생과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프로젝트 팀이다.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 증식을 막고자, 성동구청과 함께 TNR(중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16명의 임원진과 55명의 일반 회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 6) SEN

SEN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 소셜 비즈니스에 대한 스테디를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프로토타이핑하고 실천하며 사회적 가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 팀이다. 2019년에는 커뮤니티맵핑의 임완수 대표와 함께 마장동 약취에 대한 커뮤니티 맵핑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한양대학교 기숙사 내 생활용품 기증함을 설치하여 모인 물품들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7) 착한기업 서포터즈

착한기업 서포터즈는 '착한기업'의 투명한 운영, 기부활동, 건강한 상품을 지역사회에 알리면서 참여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팀이다. 지역과 대학의 협업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동반성장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이 팀의 목표이다. 2019년에는 한양대 앞 상점가 상인회, 성동청년플랫폼과 협업하여 상점가 축제를 진행하고, 상점가 내 20곳의 '착한 상점'을 선정한 뒤 메뉴판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착한기업 서포터즈는 올해에도 한양대 앞 상점가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희망한대 리더그룹 소속 팀들은 다양한 주제로 사회공헌 활동과 봉사문화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부터 2개의 신규 프로젝트 팀이 합류하였다. 대학생자조금융합동조합 '키다리은행'과 장애인과 대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액티비티, 문화, 스포츠 활동들을 기획하는 '피서서포터즈'이다. 새로운 팀들이 합류한 만큼 더욱 성장한 희망한대 리더그룹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십시일냥 행사 부스 사진

## 사회혁신 프로그램 확산

## LUNA, 어둠에 빛을 밝히다

에너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 커뮤니티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주고 돌아온 LUNA 팀과 한양대 봉사단

\*항공영 학생은 2019년 여름 LUNA 봉사단으로 참여하여 에너지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필리핀 마을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활동을 하였다. 다음은 LUNA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가 일지 형태로 작성한 글이다.

LUNA 란, Light Up The Nation의 약자로서 달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주듯, 소외되고 가난한 마을의 사람들이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밝은 빛이 되어주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해를 거슬러 올라가 2018년 APYE에서 시작된다. APYE는 Asia Pacific Youth Exchange의 약자로서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와 ADB(Asia Development Bank)에서 주최하고 UYA(Urban Youth Academy)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청년들이 UN에서 발의된 의제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프로그램이다.

와카스 타놀리(한양대 건설환경 공학과 박사과정)는 2018년 8월 허지윤(경영 16)과 함께 APYE에 참가하여 Local Immersion을 통해 2주간 필리핀 퀘존 지역의 'Tulay Buhangin' 커뮤니티에 방문한다. 그들은 현지에서 머물고 생활하며 현지의 삶을 밀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동시에 현지의 문제점들을 하나둘 발견해 나간다.

그들이 목격한 커뮤니티의 삶은 다음과 같다. 주민의 절반 이상은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에너지 공급을 받는 절반의 주민은 효율적인 사용을 이루지 못하며 그로 인해 에너지 빈곤의 악순환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이를 눈앞에서 목격한 와카스와 지윤은 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그런 혁신적인 생각도 자금 조달이라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는데, 때마침 17 Hearts Festival이라는 축제를 알게 된다.

17 Hearts Festival은 한양대학교의 1년간의 사회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축제의 프로그램 중에는 글로벌 사회혁신 프로젝트 공모전이 있어,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다면 해외봉사 자금을 조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와카스와 지윤은 열심히 노력하여 공모전을 준비하였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17 Hearts Festival의 해외 봉사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었다. 현지 커뮤니티의 주민들을 에너지 가난에서 구제해줄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와카스는 허지윤과 파키스탄 유학생 동료인 위살 카말(한양대 융합기계 공학과 박사과정)과 함께 LUNA 팀의 주축을 꾸리는 한편 파키스탄 유학생 동료 3명을 더 섭외하여 2019년 1월, LUNA 1차 프로젝트를 위해 필리핀으로 떠난다.

LUNA 팀의 1단계 목표는 전기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전기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였고 주민들도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커다란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굶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워크숍에 참여해주었다. 주민들은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방법과 전기세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LUNA 팀은 주민들의 인식과 지식을 많이 향상한 후 돌아올 수 있었다.

LUNA 팀은 귀국 전 2단계 프로젝트에 사용 예정인 효율 높고 친환경적인 태양광 가로등 하나를 커뮤니티의 마을회관 격인 Barangay Hall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 덕분에 Hall의 활용도가 꽤나 높아졌고 이에 힘을 얻은 LUNA 팀은 탄력을 받아 마을 진입로부터 총 2.2Km에 이르는 구간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 대학 사회봉사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2019 하계 대학자체 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 공모하였으며, 위 공모전에서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되었다.

2단계 프로젝트에서는 LUNA 팀원들이 분야별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업화하였다. 건설환경공학 박사과정을 진행 중인 와카스 타놀리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현지 기관과의 협업을 담당하고 프로젝트를 검수 및 관리하였고, 경영학을 전공하는 허지윤은 국내/해외 투자유치와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행정을 도맡아 진행하였으며 융합기계공학 박사과정을 진행 중인 위살 카말은 가로등의 설계 및 조립, 가로등 기술 개발 등 프로젝트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담하였다. 그렇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팀워크를 이룬 LUNA 팀은 프로젝트를 치밀하게 준비해 나갔고 이에 도움을 더해줄 15명의 한양대 봉사단원들을 만나게 된다.



선발된 봉사단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OT

별도로 선발된 한양대 봉사단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LUNA 팀에게 프로젝트를 소개받고 프로그램 내용, 일정 그리고 봉사지역 소개와 주의사항 등을 교육받으며 봉사의 목적과 프로젝트의 중요 내용 그리고 봉사단원들의 역할을 머릿속에 새겨 넣게 된다. 사전교육과 양성평등 교육 등 몇 차례의 교육을 거친 후 봉사단원들은 봉사를 위한 마음가짐으로 단단히 무장한 채 필리핀으로 떠난다. 현지에 도착한 한양대 봉사단원들이 맡은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워크숍의 홍보였다. 현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일정과 내용에 대해 모르는 가구도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단원들이 직접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세한 설명과 홍보를 하며 돌아다녔다. 두 번째 임무는 가로등 제작 방법에 대한 교육이었다.

봉사단원들이 내부 워크숍을 통해 먼저 가로등 제작법을 익히고 익힌 것을 현지 워크숍을 통해 주민들에게 가로등 제작과 설치 방법을 전수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스스로 가로등을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에 자재만 있다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가로등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작업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① 가정마다 직접 방문하며 홍보하는 모습 ② 내부 워크숍 진행 모습 ③ 현지 워크숍 진행 모습 ④ 주민들이 실제로 가로등을 제작한 모습

워크숍을 마친 뒤에는 LUNA 팀과 한양대 봉사단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함께 태양광 가로등 설치 작업에 돌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수요를 느끼는 동선과 LUNA 팀이 사전에 조사해온 합리적인 동선을 조율하여 가로등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가로등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고 커뮤니티에서의 마지막 날 밤에는 아이들과 Sports Day를 통한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창 자라나는 시기의 아이들답게 활발한 모습이었고 한양대 봉사단원들이 준비해온 미니 게임과 체육활동을 함께 즐기며 정을 나누었다. 작은 운동회를 마친 이후에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간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도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며 우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도 가졌다. 봉사 기간 내내 인사하고 따라다니던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봉사단원들과 더욱 정이 깊어졌고, 이별에 아쉬워하는 아이들이 한톨이 아니었지만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LUNA 팀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지인들이 가로등을 스스로 제작하고 설치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도 에너지 재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가로등을 선택하였고, 현지의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주민들이 태양광 가로등을 직접 조립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워크숍에 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그 결과 위의 사진에서 보인 것처럼 많은 주민들이 가로등 제작 워크숍에 참여하여 가로등을 스스로 제작하는 방법을 배워 가게 되었고, 가로등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급적으로 유지 보수 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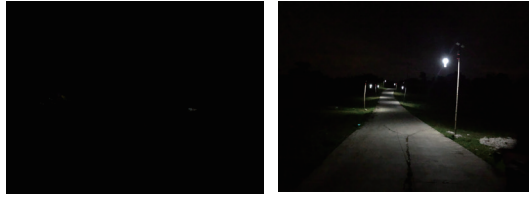
태양광 가로등은 간편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효과도 매우 크다. 태양광 가로등은 기존의 석탄을 활용한 가로등에 비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kg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LUNA팀은 약 70여 개의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였고 이 덕에 커뮤니티는 연간 약 1.5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시킬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인 효과도 있었다. 가로등 설치를 통해 야간의 안전이 확보되었고, 어업 종사자들은 출퇴근 동선의 조명 확보를 통해 생산 활동 가능 시간이 연장되어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야간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커뮤니티 내의 상호작용이 증진되고 장기적인 커뮤니티 성장을 위한 도모가 용이해졌다.

## LUNA, 가로등과 함께 마을에 변화를 가져오다.

더 나아가 LUNA 팀에서 약 100여 가구에 LED 교체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조명 시설이 노후하거나

혹은 낙후되어 사용하지 못하던 가정에게 빛을 돌려주어 삶의 질을 매우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래는 가로등 설치를 마치고 난 후의 길거리 사진이다. 가로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마치 칠흑과도 같은 어둠이 길목을 장식하고 있었다. 현지 주민의 말을 빌리면 가로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달빛에 의지하여 길을 거닐었는데 달빛이 어둡거나 구름에 가려진 날이면 밖을 돌아다니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주민은 가로등을 한 번 지긋이 바라보고는



가로등의 설치되기 전과 후의 모습

이렇게 말했다. “그런 실정의 우리에게 이처럼 커다란 축복을 가져다준 LUNA 팀과 한양대 봉사단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현지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다음은 봉사단원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의 소감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중략) 봉사를 떠나기 전에는 남을 위한 마음보다는 나의 경험이나 스펙으로 생각했던 마음도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봉사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고 그곳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꼈지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요.”,

“...(중략) 학생 주도의 봉사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고 생각해요.. 기존 해외 봉사는 학생들이 임팩트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모든 학생들이 프로그램 기획을 함께하고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더욱 커다란 성장과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LUNA 프로젝트의 영향은 현지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봉사단원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에게도 크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사회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넓은 시야와 사고방식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사회혁신형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꿈이라는 씨앗이 심어졌고 이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옮겨와 사회혁신 마인드가 심어졌다. 이처럼 커뮤니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고 사고의 Change를 만들어주는 LUNA 프로젝트야말로 진정한 사회혁신이 아닌지 생각해본다.

## 사회혁신 프로그램 확산

# 리빙랩: 살아있는 우리만의 실험실, 리빙랩

리빙랩(Living Lab)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연구실을 의미하며 기술을 이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뜻한다. 연구자가 연구실 안에서만 진행하는 연구가 아니라 시민(수요자)이 직접 참여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결과물을 만드는 개방형 실험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역 문제는 철저히 지역의 상황에 기반해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이 리빙랩의 철학이며, 연구기관의 실험실이냐 대학의 연구실이 아닌 시민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연구실이고 연구 대상이 된다.

## 사회혁신센터는 올해부터 성동구와 협약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리빙랩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월 테스트 리빙랩을 시범 운영하였다.

사회혁신센터는 올해부터 성동구와 협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리빙랩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지난 1월 테스트 리빙랩을 시범 운영하였다. 주제는 1인 가구의 생활 개선, 교통 또는 이동 문제 또는 자유 주제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1월부터 2주간 사회혁신과 리빙랩, 디자인 씽킹에 대한 전문가 집중 교육을 이수하고, 1월 3주 차부터 한 달간 실험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실습 과정에서 그룹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전문가 및 지역 활동가의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HELP’팀은 고등학생들의 진로 관련 프로젝트를 대학생 멘토와 직접 진행하는 ‘Dream-HY’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진로에 대해 고민 중인 고등학생과 진로 관련 정보를 줄 수 있는 대학생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진로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며 필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했다. ‘서성한’팀은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펄피 수거 노인들의 소득증대사업을 기획하였다. 빈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노인들이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 가공 업체에 전달함으로써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팀원들은 직접 당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커피박을 이용해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는 소셜 벤처 ‘도시광부’와 인터뷰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두 팀 모두 현재 후속 프로젝트로의 발전을 논의 중에 있다.

사회혁신센터는 2019년도 겨울 학기에 파일럿 프로그램 형태로 테스트 리빙랩을 운영하였고, 2020년 1학기부터 ‘지속가능한 도시와 소셜 리빙랩(Living Lab)’이라는 사회혁신융합과목(3학점)을 새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술 중심 리빙랩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과대학 교수진과 대학원생들 중심의 심화된 리빙랩을 추진한다. 더불어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의 문제 해결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매개로 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 기존의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론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지역 내 실제 현안에 대한 솔루션 개발까지 전문가 그룹과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참여 학생들은 리빙랩을 통해 성동구와의

업무 협약 및 기업, 시민사회, 소셜벤처그룹과의 다양한 개선 모델을 발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혁신 경험 기회를 얻게 된다.



(위) 지역전문가와와의 인터뷰, (아래) 리빙랩 회의사진

이처럼 대학과 자치구가 직접 과목을 개설해 지역사회 혁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리빙랩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혁신의 동력이 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게 되기를 기대한다.



사회혁신 프로그램 확산

# YCM: 차세대 체인지메이커를 육성하다, 유스체인지메이커스 프로젝트

‘유스체인지메이커스’ 프로젝트는 청소년의 SDGs에 대한 이해, 체인지메이커십 함양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스체인지메이커스 사무직원들은 희망한대 리더그룹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미래 사회의 주체인 청소년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알리고 주변의 사회문제를 관찰하며 해결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차세대 체인지메이커로 거듭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유스체인지메이커스 프로젝트는 2017년에 시작되었으며, 2019년에는 프로젝트 단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진행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속해서 발전하며 확대되어가고 있는 유스체인지메이커스 프로젝트를 통한 차세대 체인지메이커의 양성이 기대되는 바이다.

사무직원들은 2~3개월간의 자체 스터디를 거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체인지메이커십에 대해 스터디한다. 본인들의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며 멘토로서의 역할을 양질화시키는 것이다. 스터디 후에는 본격적으로 멘티를 모아 교류의 장을 만든다.

행사는 1박 2일로 운영되며 2단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교육 세션이다. 유스체인지메이커스 사무직원이 직접 강사가 되어 체인지메이커십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강연을 하게 된다. 체인지메이커 강의에서는 체인지메이커의 개념을 소개하고 주변의 체인지메이커 사례를 보여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강의 시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념 및 등장배경에 대해 소개를 하고, 그 세부 내용을 학습하게끔 한다. 멘티가 본격적인 워크숍 전 스스로를 체인지메이커로 인식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 해당 세션의 목적이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워크숍이 진행된다. 멘티들은 팀으로 나뉘어, 퍼실리테이터로서 한 팀마다 배치된 사무직원의 도움 아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토의하고, 사회문제를 선정하여

솔루션을 도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워크숍을 통해 나온 결과 및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팀별 피드백과 멘토 피드백의 과정을 거친다.

5기가 참여한 6개의 팀들은 선정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중에서도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우수한 솔루션을 제시한 것으로 꼽히는 팀은 4조였다. 4조가 사회 문제로 꼽은 점은 시골 지역 청소년들은 개인적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학습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4조가 제시한 것은 ‘국선 방과 후 교사제’였다. 이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은 교재를 무상으로 받고, 방과 후

시간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에서는 교재를 무상으로 보급해 준 다음에, 보급할 교재를 선정하고, 시골 지역에 있는 학생 수를 조사한다. 그리고 방과 후 교사 선발 시험을 진행한 후에, 방과 후 교사를 선발한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그 수업을 바탕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4조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공교육이 강화되고, 사교육이 감소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교육 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다.

유스체인지메이커스 사무직원들은 워크숍 종료 이후에도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멘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세션별 만족도 및 난이도 조사와, 프로그램 전체, 운영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였다. 평가에서 체인지메이커 강의는 난이도는 높았으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DGs 강의와 갤러리워크 역시 난이도는 높거나 적절한 편이었으나, 이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팀 프로젝트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종합하여 보았을 때, 팀 프로젝트는 멘티들에게 다소 어려웠으나 유익했던 세션이라고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움이 되었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준 프로그램으로 77.8%의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선택하였다.

현재는 본 프로그램은 높은 수준으로 완성된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팀들을 선발하여, 대학생 멘토와 연결하여 실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다듬어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후속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유스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를 수도권에서 대구, 제주 등 지역 사회로 확대하여 활동할 계획이 있으며, 문제점으로 발견되었던 일정, 장소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에서는 유스체인지메이커스 프로젝트와 협업을 목표로 하는 제안이 쇄도하고 있다. 계속해서 발전하며 확대되어가고 있는 유스체인지메이커스 프로젝트를 통한 차세대 체인지메이커의 양성이 기대되는 바이다.



프로젝트 조별 회의 사진



멘티 발표 사진

사회혁신 프로그램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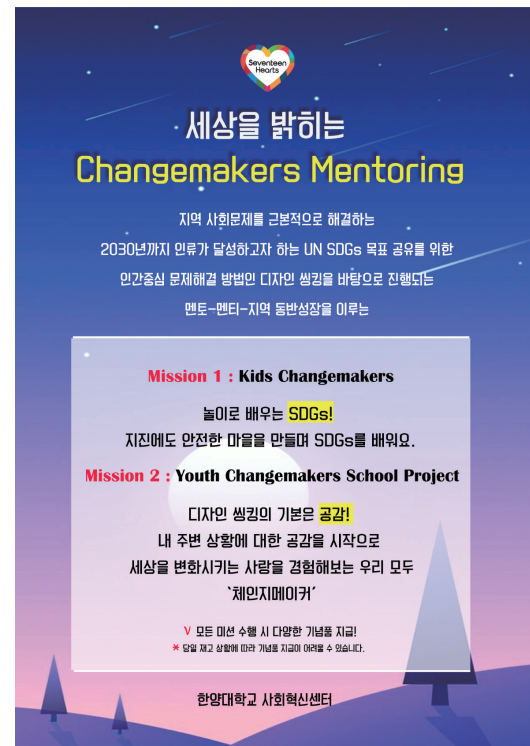
# 교육기부박람회: 한양대 ‘교육기부 박람회’ 참가 ... “세상을 밝히는 체인지메이커”

## 본교는 환경과 에너지 및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의 ‘세상을 밝히는 체인지메이커멘토링’ 부스를 운영했다.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사회혁신센터는 ‘2019 제8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 참가하여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본 행사는 교육기부 정책과 성과 공유 및 긍정 인식 확산의 장으로서 교육부 주최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하에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4일간 개최되었다.

교육기부 박람회는 ‘빛’을 테마로 하여 교육기부를 통해 빛날 미래사회 구축과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드러냈다. 기업, 대학 등 140여 개의 기관이 참가했으며 체험인원을 비롯한 총 참가인원은 15만 명에 달했다.

본교는 환경과 에너지 및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의 ‘세상을 밝히는 체인지메이커멘토링’ 부스를 운영했다. 체험존에서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교구 ▲ 리터러시 보드게임 ▲ 메이커스 플레이 보드게임 ▲ Play Aid Kit를 활용한 SDGs 및 체인지메이커스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교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인지한 이후에는 참여자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전시존에는 완성된 작품과 교구 및 책들을 선보였다.



교육기부박람회 포스터

사회혁신센터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사회혁신 교육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사회혁신과 지속

가능개발목표에 대한 방문자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인간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씽킹 방법론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멘티-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이루는 사회혁신센터 멘토링 모델을 공유하였다.

향후 본교 사회혁신센터는 체인지메이커 멘토링 코너를 확대하여 당일 워크숍을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SDGs 개념을 배울 수 있는 ‘SDGs Play Zone’을 제작할 예정이다. 본교 ‘세상을 밝히는 체인지메이커’들의 적극적인 사회혁신 참여에 귀추가 주목된다.

# 한눈에 보는 교육기부 박람회



## 사회혁신 프로그램 확산

# 비즈니스 기반 사회혁신 프로그램 확산: 카이나

KAINA는 2017년 7월 개최된 소셜벤처 청년교류프로그램 (Social Venture Youth Exchange)을 통해 처음 시작된 아이디어이다. 한승훈(파이낸스경영 13) 학생을 비롯한 4명의 한양대학교 학생들은 SVYE에 참가해 직접 필리핀 나가시티 소재 '마오그마 빌리지'의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자립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들은 빈곤 문제 속에서도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야 하는 싱글맘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한 한식당을 기획했다. 한류 열풍이 폭발적인 필리핀에서 한식 요리를 가르쳐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문화 체험 기회가 희박한 이들에게 한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은 소셜벤처 부트캠프에 참여해 이 아이디어를 한식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립하고, Seventeen Hearts Festival의 아시아 태평양 소셜 벤처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켰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빈곤 감소, 양성평등,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비롯한 5개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킨 사례이다.

2019년에 이들은 2018년도 카이나 1호점 운영에 이어 2호점 개점에 성공했다. 필리핀 현지 행정기관에 정식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협동조합 형태로의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 현장실습 교육과정 연계 형태로 장기(학기 중), 단기(방학 중) 실습생 파견을 통해 소셜 비즈니스 실전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에는 파견 학생 수를 대폭 확대하여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한 11명이 파견되었다.

또한 카이나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민간협력 '한양-필리핀 사회연대 경제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학생들은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카이나 프로젝트가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을 위한 커뮤니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카이나는 취약계층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 부양을 돕고, 더불어 서로를 돕는 자립과 연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커뮤니티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나아가 교내 한식 카페테리아라는 컨셉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나가시 시(市)는 작은 도시인데도 한식, 한류, 한국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확실한 수요를 가지고 있음은 1호점 운영을 통해 이미 증명한 상태였다. 이를 통해 카이나는 '교내 한식 카페테리아' 정체성이 수요가 있는 모델을 증명하였고, 코이카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 성장 가능성이 커짐을 역설했다.

여기에는 많은 한양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작년도 카이나 2기 장기현장실습생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사회혁신센터에서 근무 중인 김재경 연구원은 카이나 활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소통'을 꼽았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가치관이 달라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기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일과를 마무리하며 각자 생각을 논의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현지 직원인 나나이(따갈로그어로 어머니)들과 합을 맞추는 일 역시 쉽지 않았다. 한식 요리 경험이 없고 주도적인 일을 해보지 못한 탓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었다. 카이나 학생들은 계속해서 나나이분들께 의견을 묻기도 하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침내 그들은 요리를 개발하는 등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 또한 카이나는 KOICA (한국국제협력단) 민간협력 '한양-필리핀 사회연대 경제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단계임을 고려하면 아직 여러 자원이 필요한데, 공동 창업자의 빈자리를 실습생과 관리자가 보완해준 것이다. 덕분에 영업 활동이나 홍보, 회계 등의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19년도에는 이전과 달리 실습생과 관리자가 파견되었다. 김재경 연구원은 이로 인해 카이나의 지속 가능성이 보완되었다고 말한다. 카이나가 초기 성장

김재경 연구원은 "카이나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배움은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자각"이었다고 말하며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마음을 얻었다고 한다. 또한 "각자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소통해야 하기에 무엇보다도 오픈 마인드 셋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년간 지원이 확정되어 안정적인 매장 확장 파견 실습생 확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매장 수 확장으로 창출되는 화폐 가치 역시 증가하여 현재 2023년까지 총 20호점 오픈, 필리핀 취약계층 여성 84명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실습생 파견 역시 2023년까지 누적 14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문제 인식과 관심, 그리고 작은 실천이 KAINA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다. 이제는 사회, 나아가 세계로 그 영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카이나 1호점



카이나 2호점

사회혁신 프로그램 확산

# Seventeen Hearts Festival: We are the Changemaker! “17 Hearts Festival”

2019년 9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사자상 앞 광장 등 한양대학교 캠퍼스 일대에서 한양대학교와 국내외 협력기구, 파트너 공동의 사회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혁신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업의 결합을 통한 부가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 17 Hearts Festival이 개최되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행사는 “You are the ‘Hanyang Changemaker’”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한양대학교 구성원들이 체인지메이커 정신을 함양하고,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혁신 솔루션을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한 이번 17 Hearts Festival은 크게 체인지메이커 캠페인, 교내 대표 페스티벌 콘텐츠 체험, 대한민국 대표 사회공헌 컨퍼런스 3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페스티벌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한양플라자

## 1) 체인지 메이커 캠페인

체인지 메이커 캠페인은 본 일정 전에 진행된 사전 캠페인으로 2019년 9월 16일부터 20일, 총 5일 동안 한양대학교 한마당과 경영대 지하 1층 행원파크 총 두 곳에서 진행되었다. 캠페인은 4단계를 걸쳐 운영되었다. 첫 번째, 학생들에게 체인지 메이커 정의 및 취지를 설명하며 체인지 메이커 서명을 진행한다. 다음 SDGs 17개를 설명해주며 그중에서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세 번째, 원하는 주제에 대한 다짐과 이름을 넣어 라벨지를 출력해준다. 마지막으로 라벨지와 텀블러, 다용도 스티커, 리플렛을 증정하고 SNS 해시태그, 체인지메이커 계정 팔로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고, 총 1,048건의 캠페인 서명, 약 400건의 #한양체인지메이커 #17heartsfestival 해시태그 게시물을 기록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체인지 메이커 캠페인

## 2) 교내 대표 페스티벌 콘텐츠 체험

교내 대표 페스티벌 콘텐츠 체험은 체험전시부스와 플레이존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체험전시부스는 외부 기관, 학생 동아리와 협력하여 총 13개의 부스로 이루어졌다. 1번 부스는 학교기업 L.A.C. Studio가 차지하였다. 해당 부스에서는 거꾸로 우산, 손수건, ‘멘토링을 부탁해’ 등을 판매하며 2019 겨울학기 APYE 참가신청을 독려했다. 뒤를 이어 빅이슈코리아는 매거진 <빅이슈>를 판매하고, 자원봉사자와 정기구독을 홍보하며 모집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를 홍보하였고, 지파운데이션에서 주최한 나눔 바자회에서는 의류, 중고도서, 기타잡화 등을 판매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며 헌혈 다테게임, 헌혈 관련 퀴즈 등 체험 활동과 함께 나눔이(마스코트) 퍼즐 맞추기를 진행했다. 터치포굿은 패트와 블록으로 만든 화분과 박스, 페트병을 재활용한 파우치 등 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을 전시 및 판매했다. 플레이31에서는 소재구조대 활동으로 구조한 물총을 분쇄하여 나온 페플라스틱 가루와 자투리 가죽, 종이를 활용하여 직접 나만의 업사이클 플라스틱 키링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인 ‘키링이 된 물총’을 운영하였다.

학생 동아리는 6개의 팀이 참여하였다. 희망한대 리더그룹에도 속해있는 십시일냥은 고양이 낚싯대를 만들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손거울, 떡메모지, L자 파일, 투명포토카드 등의 물품들을 판매했다. 학생 동아리는 6개의 팀이 참여하였다. 희망한대 리더그룹에도 속해있는 십시일냥은 고양이 낚싯대를 만들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손거울, 떡메모지, L자 파일, 투명포토카드 등의 물품들을 판매했다.

십시일냥에서는 열 사람이 밥 한 손가락씩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한 끼가 완성되는 ‘십시일냥’을 모티브로 한 게임을 기획하여 진행하였고, SK루키는 DIY 공기청정기 수요 조사 등 다양한 체험을 운영했다. SEN은 마크라메 실로 텀블러 가방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도 열고, 동시에 켄에서 만든 마크라메 가방 또는 마크라메 실을 판매했다. 더불어 마크라메 가방 소비가 환경보호에 어떻게 일조하는가에 대한 카드 뉴스를 제공하였다. 키다리은행에서는 지폐를 세면서 간단한 퀴즈를 푸는 돈세기 게임을 진행하면서 키다리은행 굿즈를 판매하고, 조합원 회원을 현장에서 모집하였다. 체인지메이커 멘토링 캠프에서는 하계 캠프에 참여하였던 라온하제 팀과 한양캠프 로타랙트의 2019 체인지메이커멘토링캠프 공식영상과 활동영상을 상영하고, 2019 멘토링 캠프 활동사진 및 결과물 등을 출력해 앨범에 전시해두었다.

## 17 Hearts Festival을 통해 사소한 일상 활동부터 시작 하는 사회혁신을 경험한 한양인은 SNS 등으로 사회혁신 활동을 확산하며 체인지메이커 정신을 함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체험전시부스들과 함께 진행된 플레이존은 기존 SDGs 게임들과 더불어 2019년 9월 3일부터 9월 19일에 진행된 ‘SDGs 놀이 공모전’에서 선발된 게임들로 운영되었다. ‘SDGs 쟁반노래방’, ‘SDGs 모가 중요해’, ‘SDGs Twister’, ‘고갈 쓰고 사회혁신 찾기’ 4개의 게임이 선발되었으며, 페스티벌 후에 시상도 이루어졌다. 이는 학생들이 직접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플레이존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은 추후 사회혁신 프로그램에도 연계할 계획이다.

다양한 체험을 준비한 만큼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교내 대표 페스티벌 콘텐츠 체험을 스티커 릴리와 연계하였다. 각 부스마다 다른 스티커를 부여하고, 체험을 할 경우 스티커를 제공하여 일정 개수 모으면 상품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포토존, 경품 응모, 뽕기 이벤트 등을 설치&준비하여 학생들이 최대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혁신에 좀 더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부스 사진

## 3) 국내 대표 사회공헌 컨퍼런스

연계 행사로 진행된 국내 대표 사회공헌 컨퍼런스는 4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9월 25일 한양대학교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10시, 13시, 17시 세 번에 걸쳐 아쇼카 한국, “미래를 여는 시간” 포럼을 개최하였다. 9월 27일에는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층에서 전국소셜벤처 경진대회를

열었고, 9월 28일에 4차 산업혁명 센터에서 유스체인지메이커 캠프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대표적 컨퍼런스에 대해 홍보하고, 사회혁신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었다. 17 Hearts Festival을 통해 사소한 일상

활동부터 시작하는 사회혁신을 경험한 한양인은 SNS 등으로 사회혁신 활동을 확산하며 체인지메이커 정신을 함양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번 행사는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사회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 행사는 영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원, 임팩트 창출로 이어지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더욱 발전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17 Hearts Festival을 통해 개인의 ‘체인지메이커’라는 인식의 지속성이 확장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시장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눈에 보는 Seventeen Hearts Festival

아스카 포럼



소셜 벤처 경연대회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고안된 "Play Zone"



축제와 동반 개시된  
사랑 나눔 바자회



SDGs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17 Hearts Festival 홍보를 위해  
사전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사회혁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들



부스 전경



# 한눈에 보는 한양의 사회혁신

프로그램	대상	시기	운영내용 및 성과
한양사회봉사	재학생	2019.03~ 2020.02	·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로 연간 총 4회 진행 · 이수자 수: 3,258명 · 프로그램 수: 898개
사회혁신 융합전공	재학생	2019.03~ 2019.12	· 2019 사회혁신융합전공생: 61명(누적 146명) · 특징: PBL 중심 교육과정, 인턴십 연계 활용, 사회혁신 비교과 과정 참여 우선권 부여, 교육과정 자문그룹 운영
북나눔 멘토링 프로그램	재학생	2019.03~ 2019.12	· 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청 선정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학업 및 정서지원의 1:1 멘토링 프로그램 · 참여인원: 23명
현장실습	재학생	2019.01.15~ 2019.12.23	· 내용: 산업현장에서의 실무 경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혁신인재로서의 역량 증진 · 누적참여자 수: 카이나 현장 파견 실습생 31명(단기봉사포함)
희망한대 리더그룹	재학생	2019.03~ 2020.02	· 목적: 사회혁신형 봉사문화 창출 · 참여인원: 109명 · 성과: 총 7개의 프로젝트 운영, 각종 학회 및 워크숍 운영
사회적경제리더과정 (Play Changemaker)	재학생	2019.12~ 2020.02	· 목적: Action Learning을 통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경제의 실제 경험 제공 · 참여인원: 58명 · 성과: Play Changemaker 퍼실리테이터 58명 양성, 5개 지역 멘토링 캠프 운영
한양 Red Lion 글로벌 인턴십 프로젝트	재학생	2019.11.14~ 2020.01.18	· 목적: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보장 · 참여인원: 17명 · 성과: 중국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과제와 창업팀의 과제를 국내, 국제에서 수행하여 우수 창업아이템은 사업화 지원 추진
리빙랩 프로젝트	재학생	2019.10.01~ 2020.01.31	· 목적: 성동구 내 지역사회 혁신 · 이수학생: 17명 · 성과: 총 5건의 사회혁신 솔루션 도출
IBC 사회혁신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전교 및 타대학 확산)	재학생	2019.07.03~ 2019.08.21	· 목적: 사회혁신전문 기관과 협력을 통한 심화과목 운영 · 참여인원: 재학생 5명, 타교생 21명 · 성과: 루트임팩트와 공동으로 산학협력 교과목 운영
APYE (Asia Pacific Youth Exchange)	재학생, 해외 대학 학생	2019.07~ 2020.02	· 목적: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청년에너지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교류프로그램 · 참여인원: 38명 · 성과: 사회혁신 가치의 공유 및 확산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대상	시기	운영내용 및 성과
한양 체인지메이커 멘토링캠프	재학생, 전국 중고등학생	2019.07~ 2019.08 /2019.01~ 2020.02	· 목적: 교육-문화 소외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멘토링 캠프 · 참여인원: 재학생 멘토 89명, 청소년 멘티 336명 · 성과: 교육 소외 지역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자질 함양 및 재학생 멘티의 역량 강화
유스체인지메이커스 프로젝트	대학생 멘토 수도권 지역 고등학생	2019.09~ 2019.11	· 목적: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양성 · 참여인원: 27명(재학생 10명, 멘티 17명) · 성과: 총 6개의 사회문제 솔루션 도출
APYE in KOREA	대학생 멘토 수도권 지역 고등학생	2019.09~ 2019.11	· 목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한국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청년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 참여인원: 178명(한양대 23명) · 성과: 사회혁신가치 공유 및 지역사회 협력기반 구축
IBC 사회혁신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전교 및 타대학 확산)	재학생	2019.07.03~ 2019.08.21	· 목적: 사회혁신전문 기관과 협력을 통한 심화과목 운영 · 참여인원: 재학생 5명, 타교생 21명 · 성과: 루트임팩트와 공동으로 산학협력 교과목 운영
Seventeen Hearts Festival	전 대학 및 지역사회 혁신기업	2019.09.16~ 2019.09.27	· 목적: 대학, 지역, 기업, 국제기구의 사회혁신 산학협력을 위한 노력/ 성과를 국내외 청년들과 공유하는 축제 · 참여인원: 1,048명 · 성과: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산학협력의 실적을 지역사회 및 글로벌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
스탠퍼드 소셜섹터 종사자 사회혁신 연구자 및 활동가	소셜섹터 종사자 사회혁신 연구자 및 활동가	2019.10.29~ 2019.10.30	· 목적: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협업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의 장 마련 · 참여인원: 150여 명 · 성과: SSIR 발행인, 편집인, 아시아의 5개국의 사회혁신 활동가들이 참여
2019 제8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	지역사회 청소년 및 교육업 종사자	2019.10.23~ 2019.10.26	· 목적: 유아동, 청소년 등을 위해 한양대학교의 사회혁신 교육 콘텐츠 공유 및 시연 · 성과: 부스 방문자 약 500명, Play Aid Kit, SDGs 리더러시 보드게임 등의 교구 효과 검증
더착한기업 성동 선정	지역 사회혁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019.11~ 2020.01	· 목적: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대학의 건강한 산학협력을 통해 '사회혁신 산학협력'의 가치 공유 및 확산 · 선정기업: 23개 · 성과: 1차년도 '금호동 금남시장' 일대 가게 대상 착한기업 21개 선정, 2차년도 체인지메이커스그룹에 참여한 산학협력 활성화 참여 기업 등 21개 선정, 3차년도 '한양대 앞 상점가'일대 상점 대상 23개를 선정하여 총 65개 기업 확보
2019 자체개발 하계 해외봉사 (필리핀 퀘존시)	재학생	2019.07.06~ 2019.07.15	· 목적: APYE 후속 프로그램으로, 퀘존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학생 자체 기획 봉사 프로그램 · 참여인원: 재학생 17명, 수혜 커뮤니티 주민 약 200명 · 성과: 현지 커뮤니티 주민의 마인드셋 고취,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기반 형성

# 2019 Hanyang Social Innovation Center Annual Report

발행일 2020년 7월 | 기획 및 편집 사회혁신센터 | 발행 사회혁신센터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 이슬(사회혁신센터), 김규영(중어중문학과), 김소연(국제학부), 곽민서(경영학부), 권민경(의류학과), 박찬결(건축학부), 이보미(사학과), 이수연(경영학부), 임진우(파이낸스경영학과), 최재훈(경영학부), 황교영(원자력공학과)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한양플라자 2층 사회혁신센터 | 홈페이지 [hvc.hanyang.ac.kr](http://hvc.hanyang.ac.kr)

